



예수 죽으심과 부활 설교와 생활의 주제

3월 31일 부활절...그 의미와 효과적 제안 제시

부활은 기독교신앙의 핵심이며 가장 큰 신비다.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공생애를 통해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며, 창조 때부터 이어 온 구원의 희망도 의미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두말 할 나위 없이 부활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결과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의 증인이 돼 온 세상을 향해 부활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이 돼야 한다. 또 예수의 부활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되고, 많은 혼란과 분열을 겪고 있는 사회에 치유와 일치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교회력을 통해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켜나간다. 사순절기간에 주일까지 합산하면 전체 46일이 된다. 반면 부활절(3월 31일) 후 오순절(올해는 5월 19일)까지의 기간은 50일이다. 이로서 부활절을 가운데 두고 사순절과 오순절까지의 기간이 두 개의 동심원을 이루어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된다. 참으로 부활절은 교회력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사순절 기간이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오순절까지의 모든 기간은 부활의 생명력을 삶의 현장에서 재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결국 사순절에서 시작해 오순절 전까지의 모든 기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교회의 설교와 생활의 주제가 돼야 할 것이다.

3월은 모든 것이 열려지는 개화와 개문의 달이다. 겨우내 단혔던 동토에 파릇파릇 새싹들이 돋아나고 산간의 시냇물도 얼음을 깨고 흐르기 시작한다. 양상한 나뭇가지에 물이 오르는가 하면 이내 새 잎을 피우기 시작한다. 꽃 봉우리가 올라오고 화들짝 이른 봄의 꽃들이 만개하는 달이다. 때 맞추어 단단히 잠졌던 무덤문을 깨뜨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부활은 기독교신앙의 핵심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 것이 된다

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은 3월이 가진 최대의 열림사건이다.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은 묵상에 젖어 있던 교회들도 이제 문들을 열어야 한다. 초대교회 때부터 부활절 행사는

전 교회의 행사를 지배할 만큼 분명히 교회력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열쇠가 되어왔다. 그것은 일 년 동안 행해지는 연중행사의 핵심이 된다:

- ①. 처음부터 부활절은 기독교인들이 기쁨과 승리의 소리를 외치며 일요일을 부활일로 선포했다. 부활절은 고난 받는 교회의 표현이었지만 또한 개선의 날로서, 부활하신 기쁨을 맛 본 크리스천들의 경험을 선포하는 날이 됐다.
- ②. 초대교회에서 부활절에는 대세례식이 행해졌다. 세례의 행위 자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나타내 준다. 죽음을 정복하신 주님의 승리를 세례자 자신의 것으로 받아 새로운 그리스도인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 ③. 부활절은 성금요일의 슬프고 좌절된 생각대신 기쁨의 날로서 성찬식을 위한 중요한 날이었다. 그 실행은 떡과 포도주의 참된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었다.
- ④. 부활절은 결코 단 한 시간의 예배나 하루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성령 강림하기까지 50일간의 7주간 중 한 주일 한 주일이 모두 다 주님의 부활이 증거 돼야 한다. 부활일, 승천일, 오순절을 포함하는 7주간 전체의 예배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따라서 부활절은 가장 오래된 축제이며 모든 축제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성탄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활절이 점점 축소되고 있다. 사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포퓰러한 소비문화와 결부돼서 성탄절을 더 성대하게 보내는 경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독교신앙의 본령을 지키기 위해 부활의 의미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목회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한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교회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4면에서 계속)

● 발행인 칼럼

부활신앙



장영춘 목사 | 본지 발행인

아주 어릴 때 부자집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온 마을에 슬픔이 가득했다. 나는 옆집 단짝 친구와 생전 처음으로 장례식 구경을 갔다. 상주 뿐 아니라 조문객들까지 울고 또 울었다. 잠시 울음을 그쳤던 상주들은 조문객이 와서 문상할 때마다 참았던 곡성을 터트리며 슬피 흐느껴 울었다. 같이 갔던 친구가 느닷없이 말했다.

“영춘아, 나는 안 죽을래. 왜 친척들과 이웃들이 저렇게도 슬피 우는데 저 할머니는 관 속에 누워만 있지? 나는 절대로 안 죽을 거야. 죽으면 벌떡 일어나면 되는데 왜 못 일어나지. 이 다음에 두고 봐. 나는 죽으면 벌떡 일어날 거야.”

죽음이 자기와는 상관없는 듯 장담하던 그 친구는 6.25 동란 때 죽고 못 일어났다. 피지도 못한 어린 나이에 죽어버린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의 슬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무덤 하나를 남기고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아담이후 이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죽는 날이 있는 것이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사람이 죽는 것은 가장 확실한 사건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모든 인생은 다 죽는다. 그 죽음에는 순서가 따로 없다”라고 하였다.

죽음은 모든 인류를 슬프게 만들고 두려워 떨게 한다. 죽음 앞에서는 명예도, 권력도, 돈도, 건강도, 지혜도, 젊음도 모두 속수무책이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한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원한 맺힌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분이 계시다. 그 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다.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는 사흘 만에 무덤 문을 박차고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온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주신 것이다. 그 예수께서 죽음의 공포 때문에 전율하는 인류를 향하여 외치신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부활 생명! 그것은 돈으로 사는 것도, 노력이나 공로로 획득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인류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함으로 얻는 것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아직도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죽음이 닥칠까 하여 불안해하며 공포에 떠는 사람이 있다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 복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부활의 계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한다.



2면

부활절 설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3면

세속주의-종교 충돌 장기화



4면

섬세한 디자이너 소그룹 리더
필요하다!



7면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 예수님의 발자취 (II)



13면

제한된 접근국가의 ... (3)
- 노봉린 박사(선교학 교수)

창립 30주년 기념

제 6회 선교대회

THE SIXTH MISSIONS CONFERENCE

어제는 이웃, 오늘은 세계로!

기간: 2013년 4월 5일(금)~4월 9일(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샌디에고 소망교회
Korean Hope Church of San Diego

문의: 858-292-0999 / 주소: 4665 Mercury St. SD CA 92111 www.sdhope.org

초대시

부활의 영광



최세용 장로

(나성영락교회)

끝없이 광대무변한 공간 속에
수많은 우주와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하늘 가 태양계의 모퉁이 돌 하나
놓으신 후 그렇게도 좋아하신 주님!

먼지 속에 일어나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흙에서 온 아담의 후예를 이처럼 아끼사
하늘 백성 삼고자 주님 보혈 흘리셨네

우리 모습 그 성품은 바로 흙 같은 존재
무엇이 그토록 아까워 버릴 수 없었던가요
창조주의 거룩한 뜻 상상도 못한 존재들이
거짓과 욕망과 증오의 길로만 치닫던 우리
양심에 확인 맞은 역사만 남겼으리

오, 놀랍고도 크셔라 당신의 완전한 사랑!
당신의 숨결 우리 속에 역사하며 베푸신
은혜여, 당신의 숨결이 닿은 먼지 같은 존재
감히 주님의 마음 가슴에 품으니 밀려오는
이 감격, 당신의 뜻 눈물 되어 흐릅니다.

영원 속에 앉으신 사랑의 주님이시여
당신의 백성 위해 베푸신 긍휼과 자비
보혈 속에 비취는 진리의 빛과 영생의 기쁨
가슴에 넘치는 평강과 환희의 물결을

주님을 아는 지혜여, 영생을 베푸는 은혜여
당신의 사랑 부활의 능력으로 열매 맺음은
십자가의 고난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신
영원한 진리의 승리, 부활의 영광이여!

부활절 설교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요11:25-26)



권태진 목사

· 군포제일교회
·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베다니 마을에서 옥함을 갠 믿음의 사람,
마리아의 가정에도 사별의 아픔이 찾아왔
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사건
입니다.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가 중병이
걸렸을 때 예수님께 고쳐 달라고 기별했으
나 예수님은 그녀의 뜻대로 달려와서 고
쳐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
아날 수 있는 기회, 병 고칠 수 있는 기회
를 놓치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나흘이 되
었을 때에야 비로소 오셔서 무덤으로 가서
돌무덤을 열고 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
수님께 죽은지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
가 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
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요11:39)

예수님은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
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돌리신 무리를 위함
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
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
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
니”(요11:41-43)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
어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셨습
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썩어서 냄새나는 것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풍랑
과 질병도, 귀신 들리고 떨치는데 받아도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 해결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
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님 없이 문제를 해
결 하려고 하면 말만 무성하게 됩니다. 그
러나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죽은 나사로
를 살리듯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역사합
니다. 오늘날의 죽은 지식, 병든 가치관을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영생의 길을 가
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셨
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 그리스도

는 자신도 친히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나
셨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흉내 낼 수 없
습니다. 기독교의 위대성은 부활절이 있다
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정죄하거나 무서
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살려내기 위해 다
가갑니다.

무덤에서 썩어 버린 자를 믿는 것과 부활
하여 승천하신 분을 믿는 것은 분명 다른
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므로 부활절은 모든 그리
스도인들을 하나 되게 합니다. 믿음의 본
질은 같습니다. 능력도 신분도 미치는 영
향도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한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되어 살아
나신 예수님을 따라 믿는 우리도 부활에
동참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이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살전4:14)

믿음 안에서의 죽음은 부활로 연결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승을 잃은 슬픔으로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
강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
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하시니”(눅24:36)

평강은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찾아옵니
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위해 옆구
리의 창자국을 보이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길 원했습니
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
니다. 모이는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아야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
해야 합니다. 하
나님은 없고 인
생은 무덤에서
끝난다고 주장
하는 잘못된 사
상을 가진 사람

들의 논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
령을 받아 그 안에 있는 성품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성령받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
야 합니다.

세계교회는 성령 충만으로 새롭게 되어
야 합니다. 세계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부활
의 신앙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불확실한 미
래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반석되신 예수
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를 시기하여 정
죄를 일삼는 것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성
찰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몰고 오는 군
병 앞에서도 위축되지 말아야 합니다. 빌라
도 법정에서 정죄하는 군중의 소리에도 좌
우되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지고 순종의
길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긴 자입니
다. 이긴 자는 이긴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사랑하면서 당당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이 능력은 오직 부활의
주님께 있습니다. 빛과 소금, 섬김과 나눔.
사랑 실천하는 성도는 주님의 빛을 발산해
야 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빛의 사
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부
패를 막고 빛을 내며 섬길 수 있습니다. 천
국 가는 그 날까지 성화공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세계교회여, 디아스포라여! 성
령의 힘으로 하나 되어 세계선교와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바울이 변화된 것같이 하
나님이 역사하시면 고치지 못할 병, 회복시
키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온 세계교회가
이 부활절에 하나 되기를 바라며 깨어 기
도하는 마음으로 부활절을 맞이하시길 주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865-0009(대 표) (323)865-9025(광고국)
· Fax(323)865-0056(편집국) (323)8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3년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Midwest 특징

1. 직장을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에서나 On-Line으로 전 과정의 학점과 학위 취득
2. 미국 체류비자 발급, F-1 Visa 발급
3. 수시 입학 가능
4. 본교 졸업 후 IEA 절차를 따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고 IEA에서 목회지 추천 혹은 선교사로 파송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인터넷 환경이 주어지면 가능
3. Blended 강의: On-Campus강의와 On-Line강의 융합 방식
4. 인터넷 환경이 잘 안되는 지역 혹은 어려운 조건에서는 별도 교육방법
5. 지역별 교수의 만남을 통해 개인별 학업지도와 학업상담, 진로상담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세속주의-종교 충돌 장기화!

뉴욕타임스, 인도 내 종교 간 전쟁 배경과 향후 방향 보도

발리우드(Bollywood)란 용어는 그다지 익숙하지 않은 말이다.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대적할 만큼 큰 영화시장이 있는 인도 영화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할리우드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유독 인도에서만은 5%도 채 안 되는 저조한 점유율을 보인다. 그만큼 할리우드영화가 영화의 스케일, 완성도, 표현력에 있어서 최고지만 발리우드에는 그것을 능가하는 말 그대로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한 편의 영화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특유의 힘(?)이 있다.

바로 음악과 종교 그리고 조국애가 담겨진 발리우드는 어느새 아카데미 시상식에 단골출회 등장해 아카데미 대상에서 감독상까지 받는 기염을 토했고 있다. “슬램독 밀리어네어”에서 이변 “라이프 오브 파이(Life of

Pie)”까지...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주인공 파이는 바로 현재 인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모든 종교에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인도의 종교 현주소를 대표한다. 철저한 힌두교인에서 무슬림 그리고 힌두교적 크리스천으로 변화되는 파이의 성장기가 담겨져 있지만 뱀갈 호랑이와의 사투와 생존에만 사람들은 열광한다.

따라서 뉴욕타임스는 오래 전부터 인도 정부가 표방해 온 세속주의 국가 천명이 인도 현지에서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집중 조명해오고 있다. 바로 인도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믿고 있는 힌두교와 그 다음으로 믿고 있는 이슬람 그리고 기독교와의 갈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한다 (Secularism in Search of a Nation).



사진은 라이프오브 파이 영화의 한장면

역사적으로 인도를 정복한 무슬림들이 세운 모굴(Mughul) 왕국의 기념비적 건축물이다.

힌두교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은 힌두교 정당 바라티야 자나타 당을 부상하게 만들었고, 여러 차례 집권을 하도록 만들었다. 바라티야 자나타 당은 1999년부터 5년 동안 인도를 통치하다가 2004년 선거에서 빈민층의 지지를 얻지 못해 재집권에 실패했다. 하지만 최근 이 당은 모디(Narendra Modi)라는 인물의 인기를 얻고 다시 2014년 총선에서의 승리를 노리고 있다.

모디는 지난 2002년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희생됐던 폭동이 일어난 구자라트(Gujarat) 주의 주지사였으며, 폭동 당시 주지사로서 경찰

영화 “라이프 오브...” 종교 포용적 인도 현주소 대표 세속주의적 평화 정부지침 기독교 복음으로만 가능

과언이 아니다. 인도에는 두 개의 중요한 종교인 힌두교와 이슬람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두 종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갈등과 충돌을 겪어왔다. 사실 인도의 건국 초기에는 무신론을 표방하는 임벌 의원들이 여럿 존재했었지만 인도가 더욱 ‘종교적인(religious)’ 나라가 되어가면서 ‘세속적인’ 지도자들의 설 자리가 없어졌다.

20년 전인 1992년 12월 6일 인도 북부의 우타르 프라데시(Uttar Pradesh) 주의 아요다(Ayodhya)에서 이슬람의 바브리 사원이 힌두교 폭도들에 의해 파괴된 사건이 발생했다. 과격한 힌두교인들은 이슬람 사원이 있던 자리가 원래는 힌두교 신의 분신인 라마(Lord Rama)가 탄생하고 또 힌두교 사원이 있었던 신성한 장소라고 주장하며 이슬람 사원을 공격했다.

당시 힌두교인들은 이슬람 사원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이슬람 사원에서 집회를 가졌지만, 집회 도중 주체 측이 참석자들에게 이

슬람 사원을 파괴하도록 선동했다. 이 집회 주최측 인사들 중 일부가 힌두교 정당인 바라티야 자나타 당 출신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이후 인도 전역에서 힌두교인들과 무슬림 사이의 폭력 사건이 발생해 2천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인도의 유력 언론들은 이슬람 사원 파괴행위는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수개월 후 인도 신문들은 힌두교인과 무슬림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내 소개했다. 인도의 한 마을에 힌두교 사원과 이슬람 사원이 나란히 옆에 있고, 마을의 무슬림들은 힌두교 신앙을 만들고 또 힌두교인과 결혼하고, 힌두교인들은 무슬림 어린이를 입양해 키우는 그런 이야기이다. 인도의 지식인들은 이 이야기를 인도가 바라고 기대하는 그 ‘세속적’ 인도라고 치켜세웠다.

하지만 인도 국민의 대다수는 이 이야기가 인도의 실상이라고는 많이 다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는 점점 더 힌두교 국가가 되고 있으며, 인도의 힌두교인들은 이슬람을

포함한 다른 종교로부터 자신들의 종교를 지키는 명목아래 점점 더 공격적이며 위협적이 돼가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이다.

건국 초기 인도가 ‘세속적’ 국가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지도자들의 의도는 인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힌두교인들이 사회적, 문화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종교인들을 포용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었다. 즉 힌두교인들이 신성시하는 소들이 도살되더라도, 가난하고 낮은 계층의 힌두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더라도, 무슬림 공동체가 파키스탄의 편을 들더라도, 그리고 기독교 단체들이 학교를 세워 운영하더라도 힌두교인들은 이런 일들을 수용하겠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중산층 힌두교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참지 못했고 분노했으며, 그들의 분노는 힌두교 민족주의 운동으로 표출했다. 1992년의 바브리 이슬람 사원 파괴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힘을 얻은 힌두교 민족주의 운동과 반이슬람 정서의 정점이 된 사건이었는데, 특별히 이 사원은

이 무슬림들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모디는 인도 정치계에서 인도는 물론 세상의 어떤 나라라도 ‘세속적인’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퓨포럼 조사에 의하면 현재 인도의 종교 상황은 12억2,461만 명(2010년)의 인구를 가진 인도의 최대 종교는 힌두교이다. 인도 전체 인구에서 힌두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9.5%에 이르며, 제2의 종교인 이슬람 신자의 비율은 14.4%, 그리고 기독교인 비율은 2.5%이다.

현재 1억7천만 명이 넘는 인도의 무슬림 공동체 규모는 인도네시아와 파키스탄 다음으로 세계 제3위 수준인데, 20년 후에는 인도네시아의 무슬림 인구를 따라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힌두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은 계속해서 증폭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인도 내 평화는 기독교 복음만이 그 대안으로 전망되고 있다.



시론

불감증



최창섭 목사
(에벤에셀 선교교회)

지난 주 한국언론에 의하면 주말을 이용하여 군 골프장에서 군의 일부 고위층들이 골프를 쳤다는 기사가 났다. 언론들마다 최근 북한의 도발위협 등 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군 고위층들이 골프를 친 것은 우리 사회에 만들어진 안보불감증이 군에까지 깊숙이 퍼졌다는 지적이었다. 북한 군부에서는 “정전협정을 파기한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백령도와 연평도를 폭격하겠다, 한라산에 인공기를 꽂겠다”며 연일 공격하겠다는 협박성명을 내니, 대통령은 청와대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인 지하벙커에서 안보태세를 점검하며 북한의 일거수일투족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전군에 차질 없는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하던 그때에, 군 고위층일부가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군인들이 전용 체력단련장에서 주말을 이용하여 운동을 한 것을 문제 삼을 수 있느냐며 두둔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북한의 대남 공격의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누가봐도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게 상당수 국민들의 지적이었다. 거기다 대변인의 말을 빌리면, “그 주말에는 골프금지령이 없었다”는 것이다. 할 말이 없다.

북한학을 전공한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혹자는 “북한은 계속 위협을 전제로 큰소리만 치지 실제로는 절대 공격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기도 하고, 다른 이는 “서울은 아니지만 부분적인 공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사실 지난 주말에는 북한이 공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시험용으로 발사하였다는 골프로 체력을 단련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한 금지령을 내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징계를 논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안보의 위중함에 따른 상황인식, 국방을 책임지는 군 지도자들로서 기본자세가 약간 흐트러진 느낌이 들기도 한다.

이런 사례는 상당수의 정치인들, 공무원들, 젊은이들, 종교인들, 심지어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 생각된다. 불감증이란 “감각을 느끼지 못한 상태”를 말한다. 환자가 몸에 병이 들어 환부를 꼬집어도 전혀 아픈 줄을 모른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증상이다. 이처럼 모두가 국가안보나 안전의 위기, 도덕적 위기, 경제적 위기상황임에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거나 안일무사, 자기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초창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백성들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었고, 도덕적 타락의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회개 운동에 앞장서며 여행을 절제하며 삶의 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공통처럼 몸집이 비대해진 오늘의 기독교는 밀려오는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잘못된 신앙과 신학사조, 이단사이버 종교들이 교회를 혼란케 하며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잘못되게 만들어도 상황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힘을 상실한 삼손처럼 되어가는 것 같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남 왕국 유다는 바벨론나라가 군대를 동원하여 공격해옴에도 정치 종교지도자들은 국가가 처한 위급한 상황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안일무사하게 대처하다 결국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며 70년의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치욕의 세월이었다. 우리는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바로 배워 다시는 그런 수치와 부끄러움, 고통을 스스로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 기간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개인적 죄뿐만 아니라 잘못된 관행,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위기 상황들을 직시하고 극복해 나아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 마귀의 꾀계로부터 승리하시고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도 도덕적 죄에 대한 불감증, 삶의 위기에 대한 불감증, 하나님의 말씀 경고에 대한 불감증,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불감증에서 깨어나 신앙과 삶을 새롭게 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바른 신앙, 바른 정신, 바른 삶으로 무장하여 세상에 희망을 주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일신동체가 되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3여름학기 본교강의안내

May 13-May 17 (5월 13- 5월17일)

IM 815 Mission Strategy (선교전략)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Julien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 Marc Wooter

May 20-May 24 (5월 20 - 5월 24일)

DI 804 Contextualization (상황화)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PM 801 Leadership in Local Church(지역교회 리더십)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Jeffrey A. Gill

본교 소개 및 특전

-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Ronald Manahan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졸업식

(Commencement Ceremony)

일시: 2013년 5월 11일(토) 오전 9시

장소: 그레이스 대학 캠퍼스

Orthopaedic Capital Center

Off-Campus Courses

Los Angeles, CA

- March 11-15(3월 11 - 15일)
DI 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Dr. Stephen S. Park

Manila, Philippine

- April 15-19(4월 15 - 19일)
PM 804 Philosophy of Ministry(목회철학)
Dr. Ken Bickel

Korea

- April 22-26(4월 22 - 26일)
DI831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Dr. Stephen S. Park

✧ ✧ ✧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붕어 개

“생계형 레미제라블”이란 범죄가 늘고 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다른 일반 범죄율은 줄어드는 반면 생계형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생계를 위한 범죄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니 우려스러운 사회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레미제라블’이란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장발장’으로 더 잘 알려진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원작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들을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치다 19년 동안 노역을 살게 됩니다. 이 영화의 배경인 1789년의 프랑스는 극심한 굶주림과 신분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민중들은 국왕 루이16세를 처형하고 ‘왕이 없는 나라’, 즉 공화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것이 흔히 알려져 있는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혁명 이후 프랑스는 굶주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등 이웃나라들은 자국으로 혁명이 확산되는 것을 두려워 프랑스에 군대를 파견했고, 쫓겨난 왕족과 귀족들이 이들과 결탁했습니다. 혁명 지도부는 외국군과 내부의 반혁명 세력과 전쟁을 벌이면서 한편으로 내부 권력다툼에 돌입합니다. 전쟁과 혁명의 아수라장에서 경제는 엉망이 됐습니다. 날로 물가가 치솟아 민중들의 고통이 극심했습니다. 혁명지도부 중 가장 과격하였던 로베스피에르는 1793년 정권을 장악한 뒤 ‘최고가격제’를 실시해 일시적으로 물가안정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1만 명 이상을 ‘반혁명’ 혐의로 처형하는 등 지나친 공포 분위기 조성으로 2년 만에 실패하고 맙니다. 최고가격제는 폐지되고 다시 물가는 뛰어올랐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인 1796년 장발장은 조카를 위해 빵을 훔치다 체포됩니다. 장발장은 정확히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노역형’에 처해진 것이었습니다. 장발장은 출소난 뒤, 전과자 신분을 숙이고, 재산을 모아서 공장을 설립하여 재산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극심히 어려워지는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레미제라블처럼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입

니다. 지금은 한 휴양마을에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선배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려웠던 지난 시절을 회상하며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도시 변두리 빈촌에 교회를 개척하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신축하였지만 완공을 보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할 것 없이 어려운 때라 굶기를 밥먹듯이 하던 때의 일입니다. 넷째누님댁에 갔다가 복숭강아지 한 마리를 선물로 받아왔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린 때라 강아지에게 줄 양식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토실토실하던 강아지는 앙상한 뼈만 남게 되고 개밥이라곤 수제비 몇 조각뿐이니 늘 땀물로 연명하다보니 ‘붕어개’라는 별명 아닌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여 집사님 남편생일을 온 가족이 초정을 받았습다. 온 가족은 근사한 식사를 기대하며 집사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을 지나려는데 ‘복실이’ 아니 ‘붕어개’가 비실거리며 따라나서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는 개를 안고 집사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밥상은 산해진미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며 만찬을 즐겼습니다. 문밖에 있는 ‘복실이(붕어개)’에게도 집사님께서 고기국밥을 한 그릇 맡아 주었습니다. 붕어개는 비실거리며 음식을 국밥을 먹기 위해 입을 대는 순간 밖에 나갔던 그 집 수개가 돌아와보니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여 자기의 음식을 먹는가 싶었는지 달려들어 음식을 먹으려는 붕어개를 물고 흔들며 찢어놓았습니다. 오랜만에 음식다운 음식을 먹으려다 봉변을 당한 가여운 붕어개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마 차려놓은 진수성찬은 먹지도 못하고 개를 안고 교회로 돌아오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선배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은 너무 행복한 시대를 살고 계시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고국방문 중에 있기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국에 계신 분들도 힘든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붕어개와 같은 고통이 있더라도 슬퍼하거나 낙망하지 않는다면 붕어개 선배와 같이 기쁨의 때가 오리라 믿습니다.

섬세한 디자이너 소그룹 리더 필요하다!

리더십저널, 그룹원들 상황과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 대처해야

대부분의 교회가 본격적인 사역을 펼쳐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모임들 가운데 여러 그룹이 소그룹의 형태로 진행이 된다. 우리가 잘 알고 다시피 소그룹의 성패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소그룹 리더의 역할이다. 소그룹 리더가 소그룹을 위해 사전 준비를 하지 않고 소그룹의 방향성을 잘못 그래서 소그룹을 인도해간다면 그 소그룹의 미래는 그리 밝다고 할 수 없다.

이제 올 한 해의 새로운 사역들을 시작하며 소그룹에서 만나는 소그룹원들과 함께 다이내믹을 경험하는 모임, 소그룹 멤버들이 서로 모이고 싶어 하는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 리더가 준비해야 할 요소를 다시 점검해야한다. 왜냐하면 소그룹 리더는 그룹원들의 상황과 필요를 민감하게 인지해 그에 따른 인도법을 마련하는 섬세한 디자이너가 돼야하기 때문이다.

모든 그룹에는 그 그룹원들이 가지는 특징과 요구사항이 있다. 그리고 소그룹이 지향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소그룹 리더가 모임을 인도하는 자리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그룹의 성공적인 성장을 이뤄야 할 책임을 맡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임 초기 소그룹원들에게 모임의 목적을 분명히 상기시키고 이 모임에서 다루지는 것들을 섬세하게 계획해야할 필요가 있다.

소그룹의 리더는 소그룹을 위해 가장 정성을 들여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기도는 처음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힘써야 할 준비단계다. 자신이 소그룹을 건강



그러나 소그룹을 진행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융통성이다. 치밀하게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인도는 그 틀에 갇히기 쉽다. 소그룹원들의 필요에 따라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인도자의 계획을 내려놓을 준비도 해야 한다. 커다란 목표를 위해 작은 목표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모임을 준비하고 진행한 이후에 소그룹 인도는 지난 모임을 돌아보며 인도자의 계획과 준비가 충분한가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점검을 통해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체크한다. 그리고 그것을 다음 번 모임에 반영하는 것이다.

기도 우선 콘텐츠 개발, 융통성 있는 디자인 필요

작은 목표에 세심한 관심, 점검 통해 수정/보완 체크

하계 인도하며 성장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소그룹 모임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

는 것이다. 모임의 형태에 따라서 그 내용과 전달 방법에 다르게 준비해야 한다. 그룹 멤버들과 나눌 핵심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끝나면 더욱 섬세하게

소그룹 모임을 디자인해야 한다. 소그룹 멤버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해 시간 순서와 분량을 적절히 안배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소그룹 인도의 방법에 가끔씩 변화를 주는 것도 좋다.

이러한 준비와 점검을 통해 소그룹 인도자는 소그룹의 성장을 스스로 경험하게 되며 그 모임이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소그룹원들도 모임에 기대감을 갖고 더욱 마음을 쏟게 될 것이다.

예수 죽으심과 부활 설교와 생활의 주제

〈1면에서 계속〉 부활절에 특별새벽기도회나 말씀사경회 등을 하는 것은 평소에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진제 역할을 해야 하는데, 평소에 하지 않던 신앙생활의 대체가 될 위험성이 있다. 결국 부활의 대사가 건이 부활절에만 강조돼선 안 되며 모든 주일마다 기억하고 도전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활절을 특별히 의미 있게 잘 보내기 위해 어떤 행사를 하느냐보다 교회 전체가 목회나 삶에서 부활을 마음에 품고 경험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부활절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

해서는 교회 나름대로 사순절 동안 묵상집을 만들거나 교인 개개인의 신앙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영성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여기에 금식을 하거나 기호식품을 줄여 절제하는 삶을 배우며 이웃을 돌아보는 것도 강조돼야 한다.

결론으로, 부활의 그 날, 사람들이 두려워 안으로 굳게 문을 잠그고 침거해야 했던 제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숨을 내쉬며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

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복음적 케리그마를 주시며 문을 열고 나가게 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닫힌 문을 열고 나가게 하신다. 부활은 이처럼 열리는 절기이며, 다음과 같은 부활의 복음을 손에 들고 힘차게 나가 는 기회다:

죽어 썩은 것 같던 /매화의 옛 등결에 /승리의 화관인 듯/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느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거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정의는 이기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의 믿음과 사랑과 사랑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다.

봄의 행진이 아롱진/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나는 우리의 부활로써 성취될 /그 날의 누리를 그리며/황홀에 취해 있다.

(구상·시인, 1919-2004))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 일시 : 2013년 4월 18일(목, 저녁) ~ 25일(목, 저녁)
(새벽 5:30, 오전 10:30, 오후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 (818) 306-4912

| 강사 :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KWMA 운영이사/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본당, 부속건물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성경 고쳐 쓰는 공립학교 동성애 교육

미국에서 가장 먼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한 곳이 매사추세츠다(2004). 당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어떨 것을 예기치 못한 많은 크리스천가정들의 후회는 캘리포니아에서 Prop. 8 전쟁을 할 때 확연히 드러났었다. 매사추세츠에 있는 많은 기독교가정들이 캘리포니아 사람들에게 절대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격려하며 응원해주었으니까.

이제 동성결혼 합법화가 9년이 된 매사추세츠에서는 주정부 법으로 성전환자들의 성정체성과 상관없이 그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런 황당한 법들이 통과될 때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공립학교다. 공립학교들은 법을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과 가치관들이 매우 반기독교적이고 비도덕적으로 바뀌게 된다.

가장 긴급하고 알고 기도하며 행동해야 할 것 다음에 소개할 일들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시행되는 것은 아주 코앞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학부모들과 교회는 기도뿐 아니라 학생들을 철두철미하게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실제적으로 삶속에 응용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줘야 한다.



는 것을 전개시킨다고 한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연극에서 아담의 파트너인 스티브가 노아의 방주를 연기하는 중, 그 속에 있는 동물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또한 연출한다고 한다.

결국, 첫 시나리오에는 아담과 스티브를 구약시대의 창세기로 시작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두 인간의 탄생 이야기로 전개시키며 창세기의 중요한 내용들을 완전 왜곡시키는 걸로 끝을 낸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에는 21세기 지금의 뉴

항의로 창세기와 성경을 왜곡한 PVPA학교 연극은 미국 여러 곳의 뉴스가 되기 시작하며, 지난주 연극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PVPA학교는 12,000개가 넘는 연극을 하지 말라는 항의편지와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학교 대표인 Scott Goldman은 연극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학생들에게 가정의 다양성과 성경에서 그동안 잘못 가르쳐진 전통적 창세기 내용들을 지금의 사회와 즉각 연결해 새로운 가정탄생의 역사로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유익이 된다고 했다.

이 연극이 수많은 반대에도 취소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학교를 밀어주는 로컬 정치적 힘이였다. 잘 알려진,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치며 동성애를 가장 많이 지지하는 단체 중 하나인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와 지역에 있는 동성애옹호단체들의 지지가 있었다.

기도제목

만일 이슬람의 코란(Koran)을 욕보이고 비방하는 연극을 이 학교에서 했다면 아마도 미국에 있는 무슬림들과 온 세계에 있는 이슬람들이 한꺼번에 일어나 세계적인 큰 항의 시위를 벌일 뿐 아니라, 테러 협박으로 백악관에 전화거는

PVPA 공립교 “아담과 스티브” 동성애표현 연극 중지 항의 전화 편지 불구 정치적 힘 얻어 강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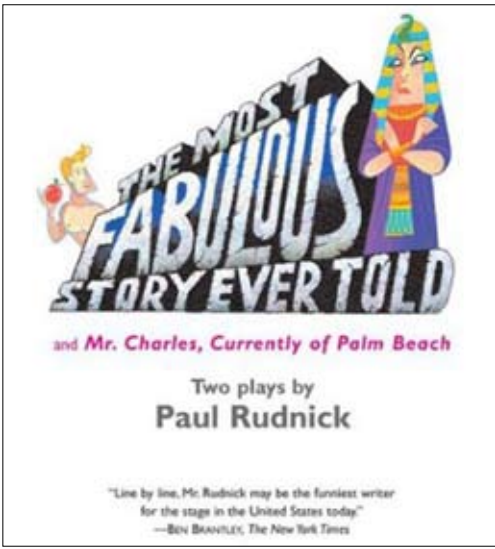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매사추세츠의 South Hadly 라는 도시에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성경속의 창세기 역사와 심지어는 예수님 탄생의 내용을 동성애 내용으로 바꾼 연극을 공연했다.

그 연극은 7학년부터 12학년 아이들로 구성된 연극으로서 성경속의 “아담과 하와” 대신 “아담과 스티브” 그리고 “하와와 제인”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 “The Most FABULOUS STORY EVER TOLD”(세상에서 최고의 멋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강행했다.

연극의 내용

이 연극은 Paul Rudnick이라는 사람이 쓴 코미디극본으로, 기독교 가치관을 모독하며 불경스러운 언어들로 창세기의 “창조론”을 완전히 동성애적으로 왜곡시키고, 동성애포로도 행위와 흉칙한 모습들의 내용들을 코미디 안에서 매우 어둡고 지저분하고 불경스러우며 모욕적으로 꾸민 연극이다.

이 연극의 첫 번째 시나리오에는 창세기를 “아담과 하와” 대신 “아담과 스티브” “하와와 제인”으로 시작된다. 어떤 사람이 극본을 검토한 후 얘기하기를 마치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성관계를 갖는지를 알려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매우 자세하게 동성애자들의 성관계하



육에 있는 아파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면 “아담과 스티브”는 에이즈가 걸린 동방박사로 출연한다. 또한, 마리아라는 여자는 자신 스스로를 레즈비언이며 자신은 아기를 본래 갖지 못하는데, 지금은 예수를 임신했다는 황당한 내용들이 전개된다.

기독교인들의 반응 vs 학교의 반응:
매사추세츠의 기독교 시민들의 많은 시위와

것은 물론이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학교에 전화해 그 연극을 못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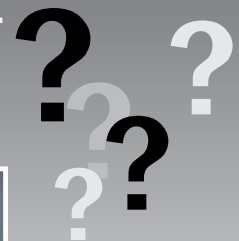
지금 미국에서 이슬람은 무섭게 성장할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데리고 온 2명의 국회의원은 매우 독실한 이슬람이며 이미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 사이에서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교육을 시켜야만 미국의 교육이 살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에 매사추세츠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 좁 늦기도 해 우리가 도울 기회가 없었지만 행여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이런 일에 함께 일어나는 것에 매우 약하다.

지금은 정말 모든 학부모들과 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 우리 자녀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가르치고 무장시켜야 할 때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당하는데 저희 속에 거룩한 분노가 없다면, 저희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학교에서 목격하게 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된다. 지금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그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호받고 다니엘과 같이 이방나라에서도 굶지 않는 용감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그들을 격려해주시기를 바란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 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저는 이곳 미국에 온지 10년 된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있지만 어떤 때는 별로 꿈이나 목표 없이 생존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에 흠어진 코리아 디아스포라로서 특별히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바쁜 삶에 쫓기며 살지만 생존을 위해 이곳에 사는 것보다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살면서.

첫째 교회를 중심으로 좋은 예배자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진홍 목사가 미국에 왔을 때 필라델피아 어떤 모임에서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안답어미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혀 못들었습니다.” “영어로 신드롬은 증상이라는 말입니다. 안답어미 신드롬은 미국에 와서 3-4년이 지나면 모두가 겪는 정신질환입니다. 안답어미란 안-안타깝고 답-답답하고 어-어쩔 줄 모르고 미-미칠 것 같은 마음을 첫 자만 따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 증상에 대한 최선의 치료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심으로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교회에서 교인들 간의 사랑을 통하여 소속감을 느끼게 될 때 이 증상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유

좋은 예배자로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명한 영화인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마지막 장면은 꽤 인상적입니다. 장군과 타니아의 대화인데 장군은 타니아에게 어떻게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느냐고 묻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기에 “혁명의 와중이고 거리는 불이 나고 복잡해서 그저 도망치는 중에...”라고 얼버무립니다. 그러나 장군은 왜 헤어진 정말 이유는... 하고 다그치자 타니아는 입 밖에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실토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내 손을 떼어 놓아버렸어요.” 이때 장군은 타니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가르쳐 주마. 코마로브는 네 친아버지가 아니었다. 너의 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야. 만일 네 친 아버지였다면 아무리 거리에 불이 나고 혁명으로 소동중이라도 절대 네 손을 놓지 않았을 거야...” 여기에 나오는 가짜 아버지는 위급하고 귀찮을 때 자기 자녀의 손을 놔버리지만 진짜 아버지는 결코 자기 자녀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유대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는 언약백성이 사로잡혀 이곳에서 고생하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자기 백성들의 손을 꼭 잡고 계시는 좋은 아버지임을 역설하였습니다.

셋째는 어려움이 와도 결코 꿈과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 희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희망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이 미국에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영어의 열심이라는 단어 “enthusiasm”이란 단어는 헬라어의 “엔 데오스”(하나님 안에서)라는 단어에게 나왔습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살며 하나님께 희망 즉 소망을 두는 자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참 소망 즉, 희망이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꿈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민사회에 우울증 환자가 많은데 이것이 다 장래에 꿈을 상실할 때 오는 현상중의 하나입니다. 우울증뿐입니까? 청소년들의 가솔이나 성적 타락, 마약, 알코올중독, 분노, 자살, 이혼 등이 꿈과 희망이 없어질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순간포착 전도법!!

제 51기 C.W.M.

전도훈련 세미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교역자, 사모, 평신도 모든 분을 초청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CWM 전도지는 결신전도에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워싱턴 베다니 교회 노요셉 목사)

“CWM 전도지 한 장 만 가지면 누구를 만나도 자신 있게 진단하고 복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뉴욕 장로교회 김육희 권사)

“단 한 번 세미나에 참석했을 뿐인데도 전도전문가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한국 새생명 교회 이인자 권사)

“그동안 많은 전도세미나에 가봤지만 이처럼 쉽고도 강력한 전도법은 처음입니다.”
(한국 은혜 교회 윤미희 사모)

○ 주강사: 조복섭 사모, 이은희 목사

○ 일 시: 4월 9일, 16일, 23일 매주 화요일 오전 9:30~오후 4:30

○ 장 소: 실로암교회(다우니에 소재)

○ 수강료: 50불(교재, 전도지, 부수자료, 점심식사 및 간식 포함)

○ 연락처: 562-480-6975, 714-371-6406, 310-749-7522, boksupcho@gmail.com

강사



조복섭 사모



이은희 목사

C.W.M.(Christ Witness Mission)은

1989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시작된 전도훈련 기관입니다. 각 나라별로 번역된 전도지를 제작, 보급하는 기관입니다. 지역, 교회마다 전도단을 세우는 기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C. W. M.(Christ Witness Mission)
11840 Paramount Bl., Downey, CA 90241
Tel: (562) 869-6160 / 714) 371-6406
Fax: (562) 862-2645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목 사 ☐
	영 어 : _____	평신도 ☐
배달 주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미리 가보는 성지순례 예수님의 발자취 (11)

6)마사다: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이며 사해의 서쪽 약 4km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주위 유대광야의 산들과는 고립된 높이 434m의 천혜의 절벽요새는 정상이 길이 620m, 가장 넓은 곳의 폭이 250m, 평균 120m인 평지를 이루고 있다. 서기 1세기 유대인역사가 요세프스는 그의 저서 “유대전쟁사”(The Jewish War)를 통해 마사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이 바위산을 처음 요새로 만든 이는 대제사장 요나단(주전160-143)이었다. 그 후 헤롯이 주전 35년에 왕궁을 짓고 성벽을 둘러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었다. 그 무렵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는 로마 집정관 안토니우스에게 유대왕국을 달라고 졸라대고 있었다. 로마에 기대고 있던 헤롯은 유대인의 반란과 로마의 배신이 두려워 마사다를 유사시의 피난처로 만들었던 것이다.

헤롯이 죽은 뒤 서기 66년 유대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로마의 월등한 군사력으로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함락과 더불어 성전의 파괴로 끝을 맺게 되자 이에 굴복하지 않은 960여명의 “열심당원

이라 불리는 극우파 민족주의자들은 이미 66년에 당시 소수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던 마사다를 점령하며 저장된 물과 식량, 무기를 이용해 로마에 대항했다. 로마군은 마사다에 40년쯤 머물렀다. 500여 년 뒤 비잔틴 수도사가 이 한동안 살았지만 페르샤 이슬람교도들이 유대를 정복하자 그들도 떠나갔다.

7)쿰란: 쿰란 사해사본을 발견한 장소. 사해 북쪽 서단에서 해변을 끼고 남쪽으로 5km쯤 가면 고대 거주지 쿰란이 나타난다. 거주

물관에 보관돼 있다.

쿰란은 사해사본을 기록한 옛센과 사람들의 주거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1951-1956년 발견됐으며 폐허속의 주 건물은 폭 27m, 길이 44m정도로서 석고가 거칠게 발라져 있는 큰 돌로 만들어졌다. 북쪽에는 수비 탑이 있으며 부엌과 붙어있는 식당에서는 1,000여점의 토기가 발견됐다.

쿰란 주변 11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사본들 가운데 두루마리 형태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은 불과 10개이며 나머지는 수없이 많은 조각들로 발굴됐다. 이들 중 약 1/4이 구약사본이며, 나머지는 구약주석, 신학서, 쿰란공동체의 규율집들로, 대부분 양피자속이나 파리루그위에 고대 히브리어로 적어놓은 것들이다. 사해구약사본은 현존하는 구약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며, 에스더서만을 제외하고는 구약의 모든 책들이 전부 포함돼있다.

1949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한 쿰란공동체는 서기 68년 로마군에 의해 완전히 파괴됐다. 그들은 로마군이 쳐들어오자 두루마리 구약서사와 문헌들을 항아리에 담아 동굴에 숨겨놓았다.

아라바 계곡

아라바 계곡은 사해와 홍해의 에일랏만 사이(전체 길이 176km, 폭 7-18km)에 있는 길고도 좁은 계곡으로 동쪽의 에돔 산지와 서쪽의 네게브 산지를 나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아라바는 사해에서 홍해에 이르는 지역을 칭하지만 성경에는 사해를 ‘아라바 바다’ 혹은 ‘아라바에 있는 바다’라고

했다(신3:17, 겔47:8).

‘아라바’는 ‘건조하고 황량하다’라는 의미로 물이 부족한 사막과 유사한 지역이어서 오아시스가 있는 몇 곳을 제외하면 거주지나 농업, 목축업에 부적합한 땅으로 성경에서는 거친 광야, 메마른 땅, 사막(욥24:5, 사35:1, 렬51:43)등으로 기록돼 있다.

강우량이 적어 농업적 측면에서는 별 효용가치가 없던 지역이었으나 고대 아라바 계곡은 누비안 사암층에서 구리와 같은 광물들이 생산돼 산업적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신8:9)이었다. 특히 아라바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푸논과 아르나쉬, 그리고 아라바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팀나 계곡 등은 구리 광산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아라바 계곡이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 더 중시됐던 것은 이곳이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로, 고대 이 지역은 중앙산지와 네게브 산지에서 남쪽의 에일랏 만과 동쪽의 에돔 산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형성돼있었다(사43: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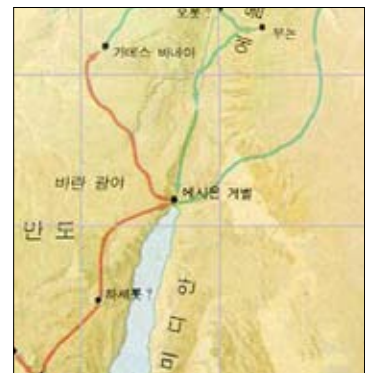
이스라엘이 아라바 지역을 관찰할 수 있었던 시기는 이스라엘 왕국이 막강한 힘을 발휘할 때였으나 왕국의 힘이 쇠약해졌을 때는 에돔이나 나바티안과 같은 주변 민족들에게 이 지역의 관찰권을 빼앗겼다. 철기시대 이후 로마 시대에 이르기까지 홍해로 내려가는 길목을 지켜주는 요새들이 중요한 지역마다 세워졌다.

대표적 도시들과 성경적 사건들

1)웃바다(Yotvata):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대략 웃바다는 에일랏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아라바 계곡 내에 가장 규모가 큰 오아시스 지역으로 고대에 사람들이 거주했던 흔적이 남아있다. 특히 에일랏으로 내려가는 중간 기착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요새 유적이 남아있으며, 로마시대에는 다이아나 여신을 위한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다. 1957년에는 ‘요트바타’라는 기브츠가 세워졌으며, 1960년대 ‘바이 하르’라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만들어져 성경시대 이 지역에서 서식하던 동물들을 자연 상태에서 보호하며 기르고 있다.

2)팀나 계곡: 에일랏에서 북쪽으로 약 2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아름다운 바위 모양이 많은 계곡으로, 네게브 사막에 위치한 구리 산지다. 팀나의 구리광산은 기원전 3천년 경부터 개발됐으며 고대 이집트시대의 구리광산 유적이 남아있다.

3)엘랏(Eilat)과 에시온게벨(Ezion-geber): 이스라엘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홍해 해변 가의 항구 도시인 에시온 게벨과 엘랏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로 통하는 관문 역할을 했다. 성경은 아카바 만에 위치한 이 두 항구도시들이 서로 가깝게 이웃하고 있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왕상9:26).

에시온게벨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 요르단의 아카바 항과 이스라엘의 에일랏 항 사이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고, 고대 엘랏의 위치는 현재 요르단의 아카바 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경에서 이곳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동편지역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광야 여정지로 언급된 마지막 장소다(신2:8, 민33:35). 솔로몬시대에 이르러 에시온게벨은 아라비아(오벌), 아프리카, 인도와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에일랏만은 기후나 조류 흐름의 조건이 산호 서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각종 진기한 모양의 산호가 많이 자라는 아름다운 바다다. 오늘날에는 일년내내 높은 기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겨울수영을 즐기는 유럽인들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이 크게 발전했다. 이곳에는 1975년부터 해저4.5m에 수중관망대를 설치해 아름다운 산호바다 홍해의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

에일랏 항구에서 남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이 만나는 ‘타바’가 있다. 6일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내반도 전체를 점령했지만, 캠프 데이비드협정에 의해 대부분의 점령지를 이집트에게 반환했다. 이때 타바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 국경지역이 됐다. 에일랏만(아카바만)을 중심으로 주변에는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네 나라가 서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가정사역 칼럼 이민 가정에서 부모/자녀 사이 갈등 (2)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지난번에는 부모/자녀의 네 가지 갈등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가 언어의 장벽이었고 둘째가 다른 가치관, 문화적 차이였고 셋째가 자녀의 심리적 신체적 변화를 이해하지 못해서였으며 넷째가 부부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 자녀사이에 갈등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민 가정에서 겪게 되는 부모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

기는 이유들 가운데 다섯 번째는, 부모님들의 지나친 사랑 때문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보다 못하다)이란 한자말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자녀들에게는 커다란 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부모님들의 이루어지 못한 자신의 꿈을 자식에게 투사하여 자녀들의 소원이나 바람과 상관없이 부모의 꿈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엄청난 후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흔히 어머니 아빠가 탄식하듯이 “아,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다 누구 때문인지 아느냐?” 혹은 “우리가 다 너를 위해 미국까지 왔지 않나?”라는 식의 채근을 하는 말은 자녀들에게 은근한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자녀들의 일과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거나 간섭함으로써 자녀들 입장에서는 구속받는 느낌을 가질 때 자녀들은 힘들어 합니다.

이에 대한 처방은 자녀와 부모와의 삶에 경계선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의 삶을 자녀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시켜주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갖도록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도와주는 셈이 됩니다.

여섯 번째, 부모자녀의 갈등원인은 주로 부모님들의 명령/지시조의 말투 때문입니다. 특히 아버지들의 말투 때문에 어머니들과 관계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자녀들과도

관계가 쉽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봅니다. 저희 집은 아들만 있어서 아빠가 씩씩하게 키워야겠다는 야심으로 아이들에게 군대식 말투로 명령조로 아이들을 키운 결과 아이들이 사춘기시절을 겪으면서 아빠와는 상대도 하기 싫다는 식의 반응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저(아내)의 도움으로 말투를 바꾼 후에야 아이들이 아빠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마침내 좋은 친구처럼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어머니들은 너무 많은 주문과 요구로 말미암아 아이들은 엄마의 얘기를 무슨 잔소리처럼 귀가로 흘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방은 명령조의 말투(You-statement)를 나 전달법(I-statement)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혹

은 난 ...하길 바래” 하는 식입니다(“아, 너 숙제 다했니?” “숙제부터 하고 놀아라!”→“아, 난 네가 숙제부터 하고 놀았으면 좋겠어”)

마국학교에서는 자기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신의 바람이나 소원 또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때 1세 부모들은 자녀들이 반항적이거나 부모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끼기 십상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들이 좀더 마음을 열고 자녀의 이야기에 충분히 귀기울여주고 부모도 자녀들에게 부모의 소원 바람들을 이야기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힘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메일: familykum@gmail.com

JoyLA.com

추제별성서대전 80%OFF

정가 \$750.00~ 세일가격 \$150.00 +Tax

32 Set 한정특가판매(1set 12권)

이끼한백 성경 성구대전 (전7권)

save 69% 정가 \$758.00

세일 가격 \$235.00 +Tax

1권:가~납하스 2권:다~롯 3권:롯가~소위 4권:소위~오늘 5권:오늘날~종 6권:종교~히트갈 7권:판람

1 개역한글성경의 성구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록 2 해당성구를 완전히 인용 3 한글성경 성구를 이에 해당하는 원어와 철저히 비교하여 말씀의 근원적 이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

JOYLA 언제나 고객감동이 있는곳

CALL : 1-800-662-7282 / Email: joylabook@hotmail.com

기념타올 판촉물 신설

자수인쇄 BATH 타올 잉크프린팅 BATH 타올

JoyLA가 확! 달라졌습니다

CROSSWAYS! 크로스웨이성경연구교제

○크로스웨이 1권~5권 ○크로스웨이 사례집 ○크로스웨이 오디오CD ○크로스웨이 수료증 ○크로스웨이 PPT 슬라이드

미주독점판매

조이기독백화점

미국: 323-766-8793 3170 W. Olympic BL. #E L.A., CA 90006

“온 교회와 성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할 때”

한반도평화 · 동성혼입법저지 위한 기도회 및 설명회

한 반 도
평화와 동
성혼 입법
저지를 위
한 기도회
및 설명회
가 18일
오전 8시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한 국 교
계 동성에
동성혼 입
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영진 장로(동성혼 입법 저지 비
상대책 위원회)와 남가주지역 교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
명회에서 한국의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현 실상을 제시하며 ‘지금이
울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임을 피
력했다.

1부 기도와 설명회는 이성우 목
사의 인사말로 시작돼 노형진 선
교사부부의 특별찬양, 송정명 목사
(LA성시화 대표회장) 기도, 김영진
장로의 제언 설명이 있었다.

이어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박희
민 목사(미주성시화 대표회장)는 “
한반도 안보 위기 속에서 동성 결
혼 입법화가 긴급히 주선되는 이때
에 조국의 평화와 동성결혼 저지를
위해 기도하는 운동이 절실하다”고



한반도평화와 한국교계 영적각성을 위한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 촬영했다.

교계와 성도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민경엽 목사(OC교회회장)는 “느
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때”라며 “한국의 동성결혼
차별금지법 소식이 가슴이 내려앉
았다. 미국은 땅이 넓어 진행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인터
넷이 전 국민에게 생활화 된 것처
럼 동성결혼 차별금지법이 실행되
면 도덕적 황폐는 한순간에 퍼져나
갈 것이다. 한국과 해외 동포가 함
께 비상기도체계를 도입해 이 위기
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성우 목사(미주성시화운
동 본부장)는 미주한인교계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취지
에 관해 “한국은 북한의 계속된 핵
공격의 위협과 휴전협정 파기로 인
해 전후 최대의 위기상황을 맞고 있

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법안
이 법사위원회에 상정돼 국회 통과
를 시도하고 있어 영적, 도덕적으로
도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의 정
치적, 영적 도덕적 위기 앞에 전 세
계 흠뻑한 한인가운데 가장 많은 한
인이 살고 있는 LA에서 한반도 평
화 정착과 동성혼 입법저지를 위해
먼저 깃발을 들게 됐다. 미주에서도



뉴브론스워신학교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브론스워 한인동문 & RCA한인교협 14일 뉴브론스워신학교 장학금 수여식

지난 14일 뉴브론스워신학교 한
인동문들과 RCA뉴욕지구한인교회
협의회가 뉴브론스워 신학생을 대
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연
광교회(담임 한재홍 목사)에서 열
린 장학금 수여식에는 한재홍 목
사, 황영진 목사를 비롯한 RCA 소
속 목회자들과 한기술 목사 등 뉴브
론스워신학교 동문 목회자들이 참
석했다.

언더우드 선교사를 배출한 뉴브
론스워신학교는 미국개혁장로교

입법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
할 것이며 전 미주 한인교회에서 대
한민국을 위해 예배 시 비상기도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전통에 변호사는 “동성
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성적지
향 조장, 자유 민주 대한민국의 국
가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주체사상
의 자유조장, 이슬람, 이단, 사이버
종교를 합법화하려는 종교조장, 사
상범, 청소년 강간 등 성범죄 전력
자 처벌을 금지하라는 범죄전과조
항이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피
력했다.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교계 동성
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
회’가 조직됐으며 상임고문에 방지
일, 이만신, 조용기, 손인웅 목사. 상
임총재 김상환 목사, 공동총재 전병
금, 이영훈, 소강석 목사가 앞장서
고 있다.

본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은 물
론 해외 동포들에게까지 확산 구성
한 후, 이천만 서명운동을 실시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고 동성에
동성혼 제지를 위해 앞장설 것”이
라고 표명했다.

(이성자 기자)



임직식을 마치고 임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 했다

미주베델교회 배기문 이재현 목사 임직식 RCA 소속...커뮤니티 봉사·찬양사역 감당

미주베델교회(담임 정요한 목사)
는 17일 오후 4시 배기문, 이재현 목
사 임직식을 거행했다.

정요한 목사 사화로 시작된 임직
식은 이병희 목사(RCA LA카운티
채플린) 기도, 박효우 목사 설교로
진행됐다.

박효우 목사(RCA한인총회장, 남
가주교회수석부회장)는 ‘사명자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뒤, 이석환 목사(야진과보아스선교
교회)가 임직자 소개와 서약을 한
후 안수식을 거행했다. 이날 안수기
도는 이영희 목사(RCA 콜로라도아
담스카운티 채플린)가 맡았으며, 김
종태 목사(캔들교회 담임)의 축사와

이재현 목사의 담사, 채류석 장로
(준비위원장) 광고에 이어 배기문 목
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배기문 목사는 고려대학교와 미
주감신에서 M.Div.를 마치고 D.Min
과정에 있으며 핸디맨 클래스를 개
최해 무료로 강의하는 등 커뮤니티
를 위해 봉사하는 사역에 헌신하게
된다.

이재현 목사는 미주총신과 미주
개혁대학원 M.Div를 마치고 Faith
Theological Seminary 박사과정 중
에 있으며 찬양사역과 아울러 선교,
전도에 역점을 두게 된다.

(정라: 이성자 기자)

고난주간 금식운동 캠페인 전개

굿네이버스,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함께

굿네이버스USA(이사장 마
동환)는 미주 전역에 있는
1,000여 한인교회와 함께 고
난주간 금식운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고난주간 금식운동은 굶주
림으로 죽어가는 제3세계의
아동들을 위해 굿네이버스
와 미주 한인교회가 함께 연
합으로 진행하는 캠페인으로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
난의 본질을 묵상하며 하루
한 끼 이상씩 금식하거나 음
식물을 아껴서 모은 금액을
제3세계에 있는 빈곤아동들
이 영양가 높은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마동환 이사장은 “미국에
서 매년 버려지는 음식물 쓰
레기 중 15%만 줄어도 2,500
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
됩니다. 더욱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
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
하며 해외의 빈곤아동들을 돕는 일
에 모든 한인교회가 함께 했으면 좋
겠습니다”라고 전했다.

2012년 모금된 기금으로는 삼각
한 식량난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사헬
지역의 5,450가정 29,728명에게 긴



금 식량이 지원됐으며 2013년 고난
주간 금식운동으로 모금된 기금 또
한 굿네이버스 32개국 사업장 중에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곳으로 보내
져 예수님 고난의 참된 의미와 사
랑을 전할 예정이다. 고난주간 캠페
인 자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ko-
readesk@goodneighbors.org 혹은
1-877-499-9898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굿네이버스)

풀러신학교 새 총장 Mark Labberton 박사

풀 러
신학교(
총장 리
처드 마
우박사)
는 오는
7월 1
일부터
임기가
시작되
는 5대
총장에
마크 래
버튼(Mark
Labberton)
박사(사진)
를 선임
했다. 래
버튼 박
사는 2009년부터
Lloyd John Ogilvie 교수 겸 Lloyd
John Ogilvie Institute of Preach-
ing의 디렉터로서 섬겨왔다.



이사장 Clifford L. Penner 박사는
풀러의 동문(M.Div.)인 래버튼
신임총장이 강력한 영적 리더십과
다양한 경험, 비전을 통해 풀러신학
교를 글로벌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
당하는 신학교로 이끌어 갈 것”이
라고 밝혔다.

래버튼 박사는 “풀러신학교는 제
인생과 사역에 여러 면에서 영향을
주었다. 교수와 학생, 스태프, 동문, 이
사들과 함께 풀러가 신학교육과 글
로벌 아웃리치에서 리더십에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이 기회를 가지게 돼 영광으
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래버튼 총장의 최우선적인 사역
에는 교회에 대한 헌신 강화, 세상
관심과 필요를 다루는 방법 심화,
풀러(분교포함) 내의 다양한 인종
적, 언어적, 교단적 배경을 가진 모
든 그룹들을 포괄해 영적으로 지지
하는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게 세우
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래버튼 박사는 Whitman
College(B.A.), Fuller Seminary(M.
Div.), 영국 캠브리지대학교(Ph.D.)
에서 학위를 받았으며, 제 3세계 기
독교 지도자들의 고급 신학교육을
위한 펀드를 제공하는 Christian
International Scholarship Foun-
dation(현재 ScholarLeaders, Int'l)
을 공동 설립했다. 목회자 영성을
위한 미가 그룹(Micah Groups)사
역을 통해 설교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2009년 풀러
신학교 교수진에 합류했다.

한편 마우 전 총장은 풀러에서 교
수로서 계속 사역하게 된다.

(기사제공: 풀러신학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구 서2동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nnan.org Tel, (82)2-490-7000, Fax, (82)31-983-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김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김동청 주일1부예배: 오전 7:4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http://gimpoch.org Tel, (82)31-984-2939, Fax, (82)31-983-4853 경기도 김포시 북부동 264번지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경예배: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광역시 북구 용문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침례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월)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교무관) VIA DEI QUINTILIO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강일동 330-5, (134-830)	삼보교회 담임목사: 박창윤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02)2645-6567-9, Fax, (02)2652-6568 서울시 양천구 목동 622-3 (158-053)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2:0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복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3:30 새벽 1부예배: 오전 5:30 새벽 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786-9988, Fax, 38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수요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매월) Tel, (055)210-4500, 4556-4566,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동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북동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강동구 인창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복동 1312번지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새벽, (82)2-338-5671 서울 마포구 수유3동 221-49 (142-073)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2:50 수요침례: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산구 자갈치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 부: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월)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강남 삼성시 강남구 봉암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자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2:00 금요성경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8881, Fax, (02)942-8882 (136-631) 서울시 강북구 강림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나경일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원평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새벽, (82)2-3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11)82-2-927-5511 서울시 용산구 이문동 302-67 (140-031)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AV. CARLOS DE FREITAS, 1253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LOS DE FREITAS,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74종교도: 아침 7:40 우. 초.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 스페인어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anigon@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ón-PARAGUAY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어머니 기도 컨퍼런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가 주최하는 “어머니 기도 컨퍼런스”가 4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동 교회에서 열린다. 강사는 정인수 목사와 유성희 전도사. 참가대상은 미주교회 사모(담임목사 동행 가능)와 기도하는 어머니로 회비는 50달러(교재 숙식 포함)신청마감은 3월 31일. 온라인 신청 www.yunhap.org

▲문의: (404)281-0593, (678)431-9827

퀸즈장로교회 여전도회 산상수련회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 여전도회 산상수련회가 25일(월)부터 27일(수)까지 포코노 하워드 존슨 호텔에서 조성훈 목사(뉴욕제일장로교회 담임)를 강사로 열린다.

▲문의: (718)886-4040

김유신 집사 순회공연

크리스천뮤지션 김유신 집사가 첫 찬양앨범 Thankfulness를 출판하고 지난 12일부터 미 동부순회공연에 들어갔다. 일정은 ▲4월 6일(토) 오후 7시 필그림교회 ▲7일(주) 오후 1시30분 베다니교회 ▲19일(금) 오후 8시 버지니아 열린문교회. 김유신 집사는 장로신학교 종교음악과를 졸업하고 도미, 보스턴 버클리음대에서 영화음악을 전공했으며 현재 뉴욕과 뉴저지에서 찬양음악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201)841-8822

“기도로 미국을 살리자!” 순회집회

한미연합예수교장로회가 주관하는 “기도로 미국을 살리자!”(렘33:3)가 미동부지역에서 열린다. △1차 집회는 3월 21일(목)-23일(토) 저녁 8시30분 베데스기도원을 시작으로 △2차 4월 25일-27일 뉴욕주찬양만국교회 △3차 5월 30일-6월 1일 워싱턴(메릴랜드) 주기도문교회 △4차 6월 27일-29일 시온감리교회 및 도시기도원에서 각각 열린다. 강사는 김엘리아 목사(워싱턴 주기도문교회 담임), 김희복 목사(뉴욕주찬양만국교회 담임), 인관일 선교사(미얀마두란노신학교 총장), 최예식 목사(뉴욕북원교회 담임), 박엘리아 목사, 손학풍 목사 등이다.

▲문의: (646)431-1875, 270-9037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녀 가르친다

퀸즈장로교회 주최 부모 컨퍼런스 “Let’s Talk”

퀸즈장로교회(담임 박규성 목사)가 주최한 부모 컨퍼런스 “Let’s Talk”가 조세핀김 교수를 강사로 개최됐다. 박규성 목사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자녀와의 문제들,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면서 그 문제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 깨달아 나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특별한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열린 컨퍼런스에서 조세핀김 교수는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코칭 △자녀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극복하기 △자녀들이 느끼는 문화충돌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아이들이 경험하는 모순적인 가치주요 △정서적 성장을 촉진하는 비결 △전문적 상담과 부모의 역할에 대해 강의했다.

김 교수는 하버드교육대학원 교수이자 정신건강 상담사, 대학 내 폭력문제 전문가 등으로 사역하며 미국과 한국, 전세계에서 수 많은 상담과 강연을 하고 있다. 목사의 가정에 태어나 초등학교 때 가족과 함께 미국에 와 리버티대학교(커뮤니케이션 전공)와 동 대학원(전문상담)을 졸업하고, 버지니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 교육대학원에서 포스트닥터 과정을 밟았다.

〈유원정 기자〉

KPCA 뉴욕일원 3노회 일제히 정기노회

뉴욕노회/김천수, 동북노회/최문병, 뉴저지노회/정 철 목사

해외한인장로교회(KPCA) 뉴욕일원에 있는 3개 노회 정기노회가 3월 11일과 12일 일제히 개최돼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뉴욕노회 48회 정기노회가 11일(월) 오후 7시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뉴욕방주교회(담임 김천수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노회는 3개 시찰 29개 교회에 목사 49명과 장로 14명 등 63명의 회원이 있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김천수 목사(뉴욕방주교회) △목사부노회장 이상호 목사(월명문장로교회) △장로부회장 한성수 장로(뉴욕한민교회) △서기 김성은 목사(뉴욕시온성교회) △부서기 최호섭 목사(뉴욕영락교회) △회록서기 김연수 목사(뉴욕주성교회) △부회록서기 허용구 목사(뉴욕한인연합교회) △영문부회록서기 안



뉴욕노회가 정기노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예중 목사(뉴욕예일장로교회 EM) △회계 오지환 장로(뉴욕영락교회) △부회계 이주의 장로(뉴욕예일장로교회).

동북노회 20회 정기노회가 11일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일정 발표

뉴저지교협 5차 월례회, 각 분과별 보고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상천 목사)가 5차 월례회를 갖고 2013년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일정을 발표했다. 총 10개 지역으로 지역별 예배장소와 설교자는 다음과 같다.

△1지역/뉴저지하베스트교회/정철웅 목사 △2지역/뉴저지만나교회/유재도 목사 △3지역/구세군잉글우드한인교회/이우용 목사 △4지역/새샘교회/담봉우 목사 △5지역/뉴저지팔복한인교회/한효동 목사 △6지역/뉴저지성은장로교회/정병일 목사 △7, 8지역/필그림교회/이신구 목사 △9지역/사랑의글로벌비전교회/윤석기 목사 △10지역/뉴저지안디옥장로교회/권영배 목사 △11, 12, 13지역/갈보리교회/김재권 목사

이날 각 분과별 보고는 다음과 같다. ▲선교분과(박인갑 목사): 선교 컨퍼런스/4월 9-11일/벤엘연합감리교회(담임 정성만 목사) ▲교육분과(임장기 목사): 설교클리닉/3

월 25일(월) 오전 9시-오후 5시/벤엘연합감리교회/강사 임장기 목사(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교수) ▲음악분과(강영안 장로): 소망 음악회/7월 28일(주) 오후 5시/필그림교회(예정), ‘어린이 찬양제’/5월 26일(주) 오후 5시/K-6학년 대상, 청소년 찬양경연대회(그룹밴드/독창/중창)/8월말 예정 ▲체육분과(방갑순 장로): 교협기금모금 골프대회(추진위원회 구성) ▲여성분과(정정숙 원장): ‘목회자 부부행복학교’/3월 25일 수료식 ▲청소년분과(육민호 목사): 호산나 청소년 전도대회 보고

한편 ‘뉴저지교협주소록’ 창간호가 부활절 연합새벽예배에서 배부될 예정이다. 또 교협산하 ‘사회봉사실’을 개설해 손한익(축복장의사/공인장례사) 집사(필그림교회)를 실장으로 임명하고 무료 장례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자세한 문의는 (201)602-1911로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주최 부모 컨퍼런스에서 조세핀김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교회) △서기 임근영 목사(매릴리터치) △부서기 유용진 목사(뉴욕동부교회) △회록서기 이준규 목사(뉴저지새소망교회) △부회록서기 박용진 목사(어스틴제일장로교회) △회계 김효균 장로(뉴욕한성교회) △부회계 박영삼 장로(은혜교회).

뉴저지노회 48회 정기노회가 12일(화) 오전 9시30분부터 뉴저지장로교회(담임 김도완 목사) 오클랜드 예배당에서 열렸다. 뉴저지노회는 3개 시찰 28개교회가 소속돼있다.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노회장 정 철 목사(예인교회) △목사부노회장 김홍채 목사(높은뜻교회), 장로부노회장 사봉진 장로(하나님의교회) △서기 한창수 목사(제일한인교회) △부서기 김영호 목사(뉴저지하베스트교회) △회록서기 박상돈 목사(한무리교회) △부회록서기 김도완 목사(뉴저지장로교회) △회계 주영수 장로(뉴저지초대교회) △부회계 김영일 장로(뉴저지장로교회) △감사 임종화 목사(뉴저지초원교회) 최준성 장로(땅끝교회).

〈유원정 기자〉



한기부 뉴욕특별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우리 기도로 이 땅 고쳐 주신다”

뉴욕부흥사협, 2013년 뉴욕교계를 위한 특별기도회

뉴욕부흥사협의회(한기부, 회장 김영환 목사)가 주최한 2013년 뉴욕교계를 위한 특별기도회가 17일 저녁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영환 목사는 “기도하러 모인 목사님들에게 감사한다”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역사가 일어날 줄 믿는다,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는다, 뉴욕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것을 믿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날 “이 땅을 고치소서”(역대하 7:14)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맡은 김중훈 뉴욕교협회장은 “솔로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며 본문말씀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며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실 줄 믿는다”고 전제하고 최근 방문한 한국 전남고흥의 길두교회와 과테말라 인디오족 방문 이야기를 전했다.

김 목사는 온 마을을 복음화 시킨

박석순 목사와 귀신 마시몽을 내쫓고 지역을 99% 복음화시킨 마리아노 목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종들이 먼저 금식하고, 주의 종들이 먼저 기도하고, 주의 종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오늘도 이 땅을 회복시켜주시기를 믿는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시간에는 △뉴욕교회영적부흥을 위하여 -한국과 미국, 북한 해무기.../이종명 목사 △뉴욕청소년-총기 마약 성범죄.../허윤준 목사 △교계분열과 분절, 지도자-목사, 장로, 직분자/박진하 목사 △뉴욕에 사이버 이단과 사탄마귀 물려갈 수 있도록/김희복 목사 △영성회복-윤리, 도덕, 물질, 세속화.../김경열 목사 △뉴욕교협의 행사-부활절연합새벽예배, 할렐루야복음화대회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이날 기도회는 사무총장 주효식 목사 사회로 대표지도 지인식 목사, 성경봉독 이주의 장로, 축도 황경일 목사, 만찬기도 유승례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1년간 한국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



푸른나무 국제학교
Green Tree International School

한국 푸른나무 국제학교에서
영어회화 선교 봉사 지원자를 찾습니다

- 영어지도 분야: 생활영어, SAT 지도
- 봉사시간: 월 - 금 (주 5일)
- 봉사기간: 2013년 6월부터 2014년 5월까지
- 자격: 미국에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이상
- 혜택: 봉사 기간 중 숙소 및 식사 제공
왕복 비행기 티켓 제공
- 연봉: 1,200만원. (\$12,000)

- 제출 서류: 이력서, 신앙간증문, 담임목사 추천서
- 제출 마감: 2013년 4월 30일까지
- 제출 처: rothemhouse@hanmail.net

한국 경북 의성에 위치하고 있는 중·고등 기독교 대안학교인 푸른나무 국제학교에서는 참된 크리스찬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며 꿈을 심어주는 믿음 있고 헌신적인 미국 청년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나무 국제학교 홈페이지

www.greentreeschool.net

학교 상담 문의 전화: 054-862-9092, 010-8780-3203
교무담당 박향기: 010-6517-6839
학교 이메일: gtis2012@naver.com

미국 문의: 노기송 목사 (한국로열진 미주총회 회장)
(푸른나무 국제학교 미주 섬김이)
전화: 917-699-6036, 이메일: rhokisong@yahoo.com

범남가주이단대책 대응 시급 구원과 박옥수 성경세미나 집중 홍보

구원과 박옥수 씨의 성경세미나를 위한 집중홍보가 지난 8일 오전 벌본과 올림픽가에 위치한 호돌이 분석 등에서 일제히 실시된 가운데 남가주교협(회장 진윤휴 목사)을 비롯한 12개 교계단체들이 의기투합해 출범한 범남가주 이단대책 등을 비롯한 교계단체들의 대응이 시급하다.

구원과 박옥수 씨는 오는 4월 7

일(주)과 8일(월) 양일간 다운타운에 위치한 Aratani/Japan America Theatre에서 성경세미나를 개최하며 이를 위한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범남가주이단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남가주교협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월 24일 남가주지역에서

열리는 이단들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출범된 범남가주이단대책모임은 출범초기부터 적극 대처는 물론, 구원과를 비롯한 이단들의 활동에 대한 대책마련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범남가주이단대책 존재의미에 의문을 주고 있다.



감사한인교회 창립 30주년 및 김영길 담임목사 목회 30주년 감사예배에서 감사교역자들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감사한인교회 30주년 및 담임목회 30주년 감사예배 ‘감사로 30년, 꿈과 소망을 향하여!’ 주제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는 교회설립 30주년 및 김영길 담임목사 목회30주년 감사예배를 10일 오후 3시30분에 성황리에 개최했다.

김영길 목사는 “많은 장로님들의 권면으로 목회의 길을 가게 됐다. 그분들의 권면이 있었기에 오늘날까지 하나님은혜로 목회를 하고 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동역한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들과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이날 감사예배는 김영길 목사가 예배전포를, 김영재 목사(A/G한국총회 총무)가 기도를, 연합성가대가 찬양을 했다. 이어 양희철 목사(전 사우디선교사, 포레스트믿음 장로교회 원로)가 “감사브랜드 교회”(눅17:11-19)라는 제목으로 설

범남가주이단대책 출범 당시 남가주교계 단체들간 MOU 체결 등으로 연합하는 것을 보이게 되면 이단들의 활동이 주춤할 것이라는 자평이 있었지만 이를 비웃기나 한 듯 박옥수 씨의 집회개최를 위한 홍보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날 출범초기 범남가주이단대책이 남가주 이단들의 활동에 적극 대처하는 명실상부한 방패막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영향력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샌디에고소망교회 제6회 선교대회
샌디에고소망교회(담임 이창후 목사)는 설립 30주년기념 제6회 선교대회를 ‘어제는 이웃, 오늘은 세계로!’라는 주제로 4월 5일(금)부터 9일(화)까지 개최된다.
▲문의: (858)292-0999

성경일독학교 신학세미나
미주두란노서원은 성경일독학교를 25일(월)부터 7월15일(월)까지 매주 월요일 9시30분에 개최한다. 등록비는 100달러. 또한 ‘칭의와 신학’을 주제로 한 신학세미나를 4월 22일(월)과 23일(화)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최된다. 강사는 김세윤 박사(풀러신학교 교수)이며 등록비는 50달러.
▲문의: (213)235-1068



이대 남가주 총동창회 선교부 주관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을 준비중인 이대남가주총동창회 임원들

이대남가주총동창회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 선교부 주관, 창립 60주년기념, 월서이벨극장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남가주동창회(회장 김정순)가 주최하고 이화여대 남가주동창회 선교부가 주관하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이 오는 4월 26일(금)과 27일(토) 양일간 월서이벨극장(4401 W. 8th St.)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된다. 이번 공연은 123년의 역사를 가진 이화여대 남가주총동창회가 창립 60주년을 맞아 열리게 된 것으로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화자 이사장은 “이번에 열리는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는 이화인으로서 커뮤니티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작품”이라며 “이화 정신은 나눔, 베품, 봉사 등이다. 이 정신에 입각해 이번 공연이 한인사회에서 빠르게 살아가는 교민들에게 감동과 삶의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순 회장은 “메시아 발레공연은 많은 사람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의 21주년을 맞이하는 4.29 폭동을 기억하며 다인종사회의인 LA에 거주하고 있는 주류사회의 청년 리더들을 선발해 이화여대 국제학

부에 마련된 교육프로그램에서 한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금으로 사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청년리더들이 한국에 다녀오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리더십을 가진 백인, 히스패닉 청년 리더들을 추천을 통해 선발하게 될 것이며 한국의 위상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레로 만나는 메시아’ 공연은 1992년에 창단한 이화발레앙상블(예술감독 신은경 교수) 26명의 무용수가 출연하게 된다. 이번 공연은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4막에 맞춰 예술적으로 표현하게 되며, 극중 베를리오즈, 모차르트의 명곡 삽입이 된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한 이 공연은 2003년 초연이후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 성황리에 공연됐으며 제 18회 기독교 문화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입장료는 20달러, 40달러이며 문의는 (714)606-9956, (909)821-2477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제52차 소망정기교육세미나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 제52차 소망 정기교육 세미나가 18일 오전 10시 나성동산교회(담임 한기철 감독)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최경철 사무총장의 사회로 시작된 세미나는 소망소사이어티 소개 및 영상, 소망중앙단의 특송, 그리고 주혜미 교수(로드랜드대학교 교수)가 ‘치매예방 정신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 소망우물 영상소개와 유분자 이사장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마무리했다.

유분자 이사장은 “죽음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찾아온다. 옛날에는 장수하는 것이 큰 복이라 여겼지만 더 이상 100세 이상 장수하는 것이 축복과 행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불시에 찾아와 당해야

하는 죽음이 아닌 죽음을 준비하며 맞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망유언서(Advance Healthcare Directive)를 작성하기를 권하고 있다. 소망유언서는 한글과 영어로 양식지가 마련돼 있고 법적인 효과도 있는 만큼 소망유언서를 작성하면 식물인간이 됐을 때 약물투약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한 소망소사이어티에서는 시신기증프로그램과 장례를 화장으로 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망소사이어티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나성동산교회에서 정기교육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다음세미나는 4월 15일(월) 최경철 원목을 강사로 호스피스 강의를 한다.

▲문의: (562)977-4580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 주최 제52차 소망정기교육세미나가 나성동산교회에서 열렸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평일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891, Fax: (714)521-4636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윤휴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oc.com Tel: (323)913-445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박현성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 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413-1600, (F) (213)383-2604 3119 West, 6th L.A., CA 90020 Tel: (213)383-2600, www.laopenoor.org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org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5:3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 (323)939-7323, (F) (323)939-1656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Fuenle) / www.nachimbun.org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목요일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Tel: (213)215-8522, Fax: (562)690-304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주일 2부 예배: 오전 9:30, 11:00 목요일 예배: 오전 11:00 (Holywave-영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 4부 예배: 오후 1:1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성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	등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동양선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영이예배: 오전 11:00 4부 영이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468-1234, Fax: (323)466-0816 424 N.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서 함께 있는 우리의 중 복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전화: 박경희), Tel: (213)210-6890 1213 Garcia Marquez St., HB L.A., CA 90033	드림교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점심 기도회: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비전 18 세례회: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토) www.samsungchurc.org Tel: (562)890-8800, Fax: (562)890-3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미주양광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 송정명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igopacechurch.org Tel: (310)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손인식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영어) 주일 5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Tel: (949)854-4010 / E-mail: belthel@bkc.org 18700 Harvard Ave., CA Irvine, CA 92612 www.bkc.org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6:30(토)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이예배: 오전 2:00(매주목) 금요일: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St., La Habra, CA 90631	브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 오전 5:40(화-토) 토요일 기도: 오전 11:00 토요일 찬양: 오후 6:00 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이 1부예배: 오전 9:30 영이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오전 6:30(토) 24시간 기도 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비전 교회 담임목사 : 김영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00 영이 2부예배: 오전 11:00 영이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15(월-토) Tel: (818)363-5887, Fax: (818)368-8883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8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영어) 주일 5부예배: 오후 1:45 금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 기도: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얼마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한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15(M) 주일 6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로회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전 7:3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213)245-409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토요일 기도: 오전 11:00 토요일 찬양: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오전 6:30(토) 24시간 기도 www.graceml.com Tel: (714)446-6202,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9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c.org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춘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4: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수요 찬양: 오후 7:30 www.gpc.com Tel: (909)388-2940, Fax: (909)388-2941 173 E. Dumas St., San bernadino, CA 9240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로회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conestonch.com / e-mail: pastor@conestonch.com Tel: (910)6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5(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로회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o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 설교 조용기 목사



한 국 기 독 교 총 연 합 회 (한 기 총·대표 회장 홍재철 목사)가 주최 하는 2013년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가 오는 31일 오전 7시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에서 열린다.

이날 설교는 조용기(사진)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가 맡으며 모인 헌금은 북한 결식 어린이 돕기에 사용된다.

한기총은 16일 오전 서울 장충동 그랜드앰배서더 호텔에서 1차 준비회의를 갖고 2013년 부활절연합예배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재철 대표회장과 김자연 임신행 이광선 전 회장, 강영선 기독교대한하나님의 성회(여의도순복음) 부총회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장은 홍재철 목사, 예배준비위원장은 이영훈 목사가 맡기로 했다. 명예 대회장은 한기총 전 회장단이 맡는다. 한기총은 이에 앞서 전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고난주간 아침 금식기도를 드리기로 결의했다.

홍 대표회장은 “올해 부활절연합예배에는 한기총 소속 교단은 물론, 전국교회 성도들이 참여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특히 참석자들이 예수 부활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 화합과 경제 번영,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독교단체 ‘차별금지법안’ 폐기촉구 잇따라

“사회 국가 근간 흔들 ‘악법’ 소지 크다”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기독교 단체들의 입장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종교평화기독교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별금지법안은 기독교뿐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의 근간을 흔들 ‘악법’이 될 소지가 크다”며 상정안 폐기를 강력 촉구했다. 대책위에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미래목회포럼, 한국교회헌학회, 한국교회연합, 예장 합동 및 통합 총회, 기감 총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는 차별금지법안이 철폐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국회에서 개최

최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설득작업을 벌이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대책위는 이번 법안의 문제점으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점, 미션스쿨의 종교교육 제한이 강화된다는 점, 타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선교·전도가 봉쇄되고 종교 간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에스더기독교운동은 20일 서울 영등포 민주통합당 당사와 여의도 국회의원사당 앞에서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단체는 회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침묵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된다”며

“학부모 및 교육자들과 함께 ‘전국 유권자연맹’을 결성, 4·24 보궐선거 등 모든 선거에서 차별금지법안 찬성 의원과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남 22개 시·군 기독교연합회의 연합체인 전남기독교총연합회도 지난 15일 전남 광양 광양교회(윤태현 목사)에서 대표회장 사·취임식 및 전남 발전을 위한 기도회를 가진 뒤 ‘동성애·동성혼 입법저지 결의대회’를 열고 법안 철회 및 폐기를 촉구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성시지도자교육원장 정장

식 장로는 “차별금지법안에는 성적 지향, 종교, 사상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 독소조항이 들어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가족 체계의 붕괴와 이단·사이비의 발흥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여수기독교연합회와 여수기독교유리실천운동 등 여수 지역 12개 기독교 단체들도 차별금지법안 철회 및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교계 동성애 동성혼 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중 상당수가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면서 “전남교계가 책임지고 해당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철회 또는 폐기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정현 목사, 6개월간 설교 않고 회개 자숙키로

사랑의교회 당회, 논문표절 결론

사랑의교회 당회는 17일 “오정현 목사가 남아프리카 포체스트룸대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여러 종의 저서 일부를 표절했다”고 발표했다. 오 목사는 사교 입장을 밝히고 포체스트룸대와 바이올라대의 박사학위를 반납하고 6개월간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권영준 장로에 대해선 당회 공개 사과와 자숙을 권면키로 했다.

사랑의교회는 “논문의혹 관련 대책위원회의 진상규명 결과 오 목사가 1998년 포체스트룸대에서 취득한 박사학위 논문을 여러 종의 저서를 표절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담임목사는 표절 시비와 이에 따른 대처에 있어서 적절치 못한 언행과 처신으로 많은 성도와 한국교계,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교회는 “이에 담임목사는 포체스트룸대 철학박사 학위와 바이올라대의 목회학 박사 학위를 내려놓기로 하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회개하며, 그동안 고통 받은 교회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입장을 당회에 표명했다”고 밝혔다.

교회는 또 “사랑의교회 명예를 실추시킨 담임목사는 자발적으로 6개월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갖기로 했으며, 이 기간 중 사례의 30%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사역은 당회가 제시하는 사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 목사는 18일 자정부터 9월17일까지 자숙기간을 가지며 다음주 구성될 사역발전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예정이다. 자숙 기간동안 설교는 하지 않지만 법적 대표권, 치리권, 행정권 등을 포함하는 당회장권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교회는 이 문제를 폭로한 권 장로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교회는 “권 장로는 담임목사 논문 표절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절차와 방법으로 대외의 물의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면서 “권 장로는 당회에 공개 사과할 것과 자숙할 것을 권면했다”고 밝혔다.

교계 이색 위원회 출범

예장통합 화해조정·예장고신 인재풀위원회

교이고 막힌 한국교회 치유·재도약 해법 찾아

주요 교단들이 해묵은 내부 문제의 해법을 찾거나 교단 발전을 꾀하기 위해 새로 설치한 특별한 목적의 ‘이색 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예장통합의 화해조정위원회와 예장고신의 교단인재풀운영위원회가 대표적인데,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타 교단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몇 년 전만 해도 서울 강북의 대표 교회로 꼽히던 A교회(예장통합 소속). 담임목사와 얽힌 문제로 분쟁을 겪으면서 교인들은 흩어지고, 교회는 3년 가까이 각종 송사에 휘말려 있다. 교회 입구에는 출입을 막는 철조망과 바리케이드까지 설치된 상태다.

이 같은 교회 분쟁은 예장통합총

회(총회장 손달익 목사)가 올 초 임원회 산하에 화해조정위원회(위원장 이순장 목사)를 두게 한 이유 중 하나다. 이순장 위원장은 18일 “갈등을 빚고 있는 교단 소속 교회를 대상으로 화해·조정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교회 구성원들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보자는 게 위원회의 주된 목적”이라며 “현재 통합교단이 펼치고 있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 운동’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합교단 산하 교회 중에는 광성·봉천·강북제일교회 등이 짧게는 1~2년에 걸치는 10년 넘게 법적 분쟁 등 침체한 갈등을 빚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계속 방치될 경우 해당 교회는 물론 교단, 나아가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이미지와 대사회적 영향력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는 게 통합교단 지도부의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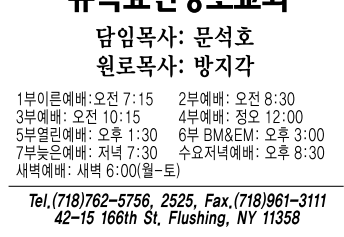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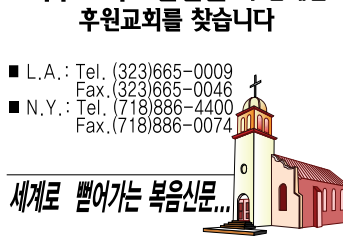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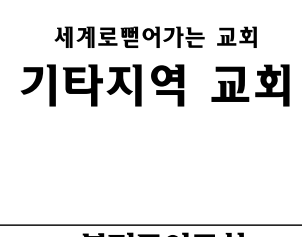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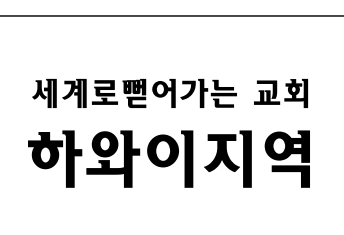
이 위원장은 “화해조정위는 향후 노회의 협조 요청에 따라 총회 임원회에서 화해·조정을 시도해 달라고 이첩한 사건들을 주로 다루되, 노회나 총회 재판국에 계류 중인 사건은 법적 논란 소지가 있어 다루지 않도록 역할 범위를 정해놓은 상태”라며 “현재까지 이첩된 사건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해조정위는 오는 5월 24일 ‘화해·조정’ 관련 세미나 개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위원회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예장고신(총회장 박정원 목사)의 경우 교단인재풀운영위원회(위원장 유해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가 교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해무 위원장은 “교단이 배출한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발굴하고 이들을 결집시켜 교단, 나아가 한국교회의 발전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고 기구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당초 고신교단의 인재풀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교단 산하 신학교육기관을 마친 목회자들의 정보를 취합·공유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노회를 거둬들이면서 역할 및 활동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 유 위원장은 “교단 출신 인재들의 데이터베이스 구축뿐만 아니라 교계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재들의 연합체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재풀위원회에서 규정한 ‘인재’는 다음과 같다. 교단 신학교 출신이나 교단 소속 일반 교인 가운데 교회나 국가·사회적 위치에서 전문분야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일’(엡 4:12)에 헌신하고 있는 이들. 위원회는 1차로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각 분야 인재 50명을 발굴·선정할 예정이며, 향후 교단 내에 ‘인재 양성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라고 유 위원장은 밝혔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담임목사: 전희수 교육목사: 케티민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9:00 금요찬양: 오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후 6:30(토) Tel.(718)359-7883, 직통.(646)270-9771 41-44 149th Place, Flushing NY 11355 E-mail: joynglorch@yahoo.com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718)482-7788, Cell.(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5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Tel.(718)464-2285,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후 9:00 금요기도회: 오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기도: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저녁예배: 오후 9:00 금요예배기도회: 오후 9:00 세례기도: 오전 6:00 Tel.(718)461-2810(Fax 권영),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2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사)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후 9:00 금요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18)639-3021, Fax.(718)507-6376 71-17 Roosevelt Ave, Jackson Heights, NY 11372	 뉴욕효신장로교회 담임목사: 문석호 원로목사: 방지각 1부미션예배: 오전 7:15 2부예배: 오전 8:30 3부예배: 오전 10:15 4부예배: 정오 12:00 5부열린예배: 오후 1:30 6부 BM&M: 오후 3:00 7부늦은예배: 저녁 7: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세례예배: 새벽 6:00(월-토) Tel.(718)762-5756, 2525, Fax.(718)961-3111 42-15 166th St, Flushing, NY 1135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10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금)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후 9:30 (매주 주, 수)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공정공부: 오후 8:30 수요 찬양예배: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통가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님.(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주일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15 매일세례예배: 오전 6:00 Tel.(732)310-0022(교회), Fax.(732)537-9742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규성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수요찬양예배: 오후 12:15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세례예배: 오후 1:30 NCF영양: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c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담임목사: 이영철 주일남예배: 오전 11:00 주일자녀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남예배: 오전 11:00 주일자녀찬양예배: 오후 7: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송성섭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주일 6:00 주일학교예배: 오후 11:0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목사님: (704)989-4412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6:00 매일세례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영 양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벤넬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금요기도회(전양): 오후 1:45 EW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41)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ci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생예배: 오후 1:30 대학생예배: 오후 1:30 유치, 유년노부: 오전 11: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ixkinton, MA 01748
 볼티모어교회 담임목사: 이영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Tel.(410)337-9448, 882-0181, Fax.337-9446 1600 Seminary Ave, West, Lutherville, MD 21093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세례기도: 새벽 6:00 주일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권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2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얼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얼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타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찬양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남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1:15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jkc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세례예배: 오전 5:30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264 Corporate Court Ellci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세례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월/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월/영) Tel.(253)535-6207, 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수평 1부영양예배: 오전 9:30 주일남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253)536-6675, Fax.(253)474-9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수요저녁예배: 오후 2:00(월/일)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후 6:30(토) www.lkpcac.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보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45 9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진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세례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토)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지역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아가페산교침례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808)735-0011 1635-A Palolo Ave, Honolulu, HI 96816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30(영양)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제한된 접근국가의 신학교육 이슈 (3)

(Theological Education Issues in Restricted Access Nations)

노봉린 박사
(Concordia Seminary, Th.D.)



3)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AGST)
AGST는 1984년에 창설돼 "아시아 신학자를 아시아에서 키우자"(Train Asians in Asia)라는 목표로 네 학위(Ph.D., Ed.D., D.Min., Th.M.)를 수여하게 됐다.
ATA 인가를 받은 필리핀의 8개 신학대학원이 협조해 AGST-Philippines를 구성해 현재까지 150명의 졸업생을 또한 일본의 AGST-Japan은 35명의 졸업생을 각각 배출했다. 동남아시아는 AGST-Alliance(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창설해 각각 신학자를 배출하고 있다.

한국에도 AGST-Korea가 2012년 후반에 창설됐고 ATA 인가를 받은 9개 신학교가 협조해 한국선교사 계속 교육과 원주민 신학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창설된 것이다. 앞으로 아시아에 있는 중국신학교들이 중심이 되어 AGST-Chinese도 창설되기를 원하며 한국 신학교도 이에 동참해 중국신학자 양성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AGST-Indonesia, AGST-India, AGST-Middle East 등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Dr. Bruce Nicholl(ATA Senior Advisor)은 ATA에서 ATA On Line University를 창설하기를 제의했고 이에 대해 토론 중에 있다.

4)기독교 교육

ATA는 아시아 교회의 기독교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 Pan-Asia Christian Education Seminars가 1978년과 1987년 싱가포르에서, 1990년 서울에서 거행됐다.

비접근국 선교 전략은 신학교육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교회지도자/신학교교수 양성은 국가안팎에서 이뤄져야

ATA CE 코디네이터인 Dr. Edith Woods는 아시아의 여러 신학교를 방문해 기독교교육을 강의했고 그 결과 마닐라에 AGST-Philippines 기독교교육박사(Ed.D) 코스를 Alliance Biblical Seminar에 창설해 1989년 첫 Ed.D, Th.M 학위를 수여하게 됐다. Ed.D프로그램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5)문서사역

ATA는 14년간(1976-90) Asia Theological News(24페이지)를 매년 네 번 출판해 아시아 신학교육 상황과 신학적 이슈를 다루는 잡지를 출판했다. 또 Asian Perspective(1-33번)라는 작은 책자를 출판해 아시아교회의 이슈를 다루게 됐다. 그 외 ATA는 매 3년마다 열리는 신학자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편집해 10여권의 신학교 교과서를 출판했다. 현재는 ATA News(8페이지)를 매년 네 번 출판하며 Journal of Asian Evangelical Theology를 매년 두 번 마닐라에서 출판한다.

3. 21세기-아시아 신학교육의 성숙시대

오늘의 ATA는 230개가 넘는 멤버를 갖고 있는 아시아 최대의 신학협의회가 됐다. 필자가 1970년부터 ATA를 위해 사역했을 때 아시아의 복음주의 신학교육 상태는 오늘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놀라울 정도의 발전을 이룬 것을 목격할 수 있다. 현재 일본으로부터 인도에 이르기까지 신학대학원 레벨의 신학교도 많이 창설됐고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신학교에 의존해서 아시아 교회지도자와 신학자를 키우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믿는다.

특히 한국의 신학교육은 아시아에서 최고로 발전했다. 2000명이 넘는 Ph.D. 레벨의 신학교 교수가 있으며 한국어로 된 신학서적도 대량 출판됐다. 한국의 대학원 레벨의 신학교의 수도 아시아의 어느 나라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아시아 신학교육은 물론 아프리카, 남미의 신학교육 운동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대가 한국교회에 찾아온 것이다. 한국교회 선교운동은 교회를 중심으로 열렬히 전개되고 있으며 24,000명이 넘는 한국선교사가 17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열정이 한국 신학교와 신학교 교수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다. 한국 신학교수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고 선교지에 가서 신학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III. 제한된 접근국가의 신학교육의 이슈

1. 핍박으로 인한 신학교육정보의 빈약

중국을 비롯해 이슬람국가들의 정부의 핍박과 감시 하에 신학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확실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한국교회의 중국신학교육선교는 ATA와 중국 화교신학교들, 그들의 선교단체들과 한국의 여러 선교단체들이 협조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신학교육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이에 대한 선교전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 700여개의 신학교가 존재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 Dr. Thomas Lee(홍콩국제중국어성경학교 교장)는 1989년부터 20년간 중국을 오가며 사역한 선교학자로 약 2년 전 안성에 있는 사랑의교회 수양관에서 아시아선교학회(Asia Missiological Society)가 모였을 때 필자에게 자기는 중국의 200개의 가정교회신학교들과 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KWMA는 중국신학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장래의 중국신학교육 선교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이유는 장래의 중국교회 성장은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과 긴밀히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중국교회 신학교육의 이슈는 이슬람국가와 공산주의 국가의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신학교육 문제와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신학교육을 위한 선교전략이 다른 제한된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신학교 교수 양성의 시급성

중국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을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다 잘 아는 사실이다. 중국신학교가 살아야 중국교회가 살고 중국교회가 살아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교회지도자 양성과 신학교 교수양성은 중국교회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신학교교수 양성은 중국 밖에서와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아빠의 선물 (8)

정정숙 박사
(패밀리터치 원장)



아빠의 선물

2011년 3월 31일은 내 삶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버지니아에서 가정사역 컨퍼런스를 끝내고 스테프인과 저녁식사를 하려는데 재인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하버드 대학 됐어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식당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재인의 하버드 합격소식 때문에 저녁식사 자리는 축하 턱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지니아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체증이 없는데도 달리는 차가 느림보 거북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재인이를 열서안았습니다. “축하해!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처럼 좋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재인이가 입학원서를 냈던 여러 대학으로부터 전액 장학금 수혜소식과 함께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학 합격자 발표 마지막 날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재인이가 하버드에대학에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바람에 원서를 작성할 즈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자기는 하버드에 갈 실력이 안 되니까 내보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사정을 했습니다. “재인아, 안돼도 괜찮아. 하지만 최선은 다해보는 거야. 시도를 하고 나서 결과가 안 나오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네. 그러나 일단 시도하고 나면 후회는 없잖아.”

그래도 싫다고 하는 아이와 한참을 입씨름했습니다. 사실 재인이 입장에서 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서를 내지 않으면 불합격이라는 쓴맛을 볼 필요가 없겠지만 원서를 내고 불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을

테니까요. ‘실패’를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원서 마감일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재인아, 엄마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야. 입학이 되고 안되고 그제 문제가 아니야. 엄마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꼭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제 엄마가 원하는 거야.” 한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재인이는 투덜거리며 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만명의 지원자 중 올케 하버드 합격자 수는 1천7백명이 라고 하니 통계상으로 봤을 때 합격은 하늘의 별따기인 셈입니다. 하지만 나는 재인에게 많은 장점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 성적도 SAT 점수도 잘 나왔고, 리더십을 인정받은 기회도 많았습니다. 교내 크리스천클럽인 ‘하베스터’(HARVESTER)의 회장직을 맡았을 뿐 아니라, 아빠의 병인 루게릭병 퇴치를 위한 연구비 모금을 위해 LOVE FOR YOU라는 단체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리더십은 충분히 입증된 셈입니다.

수상경력도 만만치 않았습니 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서 선정한 미국과 영국 내 11학년 학생들 가운데 성적과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 250명을 뽑는데 그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코카콜라 재단에서 뽑는 장학생으로 발탁되어 1만 달러의 장학금 수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재인이는 고등학교 4년 내내 자원 봉사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한번은 내가 재인에게 물었습니다.

“재인아, 자원봉사는 좋은 대학 가기 위해 하는 거야?” 재인이가 정색했습니다. “엄마는 날 어떻게 보는 거야? 대학가기 위한 봉사는 이미 충분히 해서 더 안해도 돼요.”

순간 남편이 세상 떠날 때 아이들에게 남겼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렴. 기회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만이 아

니고, 바쁘고 돈이 없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미루어서는 안돼!” 재인이는 아빠의 말을 기억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재인이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쓴 몇 개의 에세이 중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일’에 대해 쓴 것이 있습니다. 재인이는 아빠의 투병과 죽음에 대해 썼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를 전까지 자신은 생각지 않고 나의 소프트볼 경기에 큰 아빠를 보내 응원을 부탁할 만큼 나를 사랑한 아빠였다. 그것이 나에게 보여준 아빠의 마지막 사랑,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행위였다. 나도 우리 아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일을 위해 공부하고 그 일을 위해 살고 싶다.” 재인이는 그 글에서 아빠의 사랑으로 비롯된 자신의 미래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인이 친구한테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하버드 입학축하 메시지를 보내자 재인이가 “이건 우리 아빠의 선물이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겠다는 아빠의 유언을 기억하고 아빠의 기도 때문에 합격했다고 재인이는 생각했나 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하늘이 아빠가 준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책임을 위임하며 “이 아이들을 저 대신 잘 키워주세요!”라고 기도했던 아빠. 그 하늘이 아빠가 주신 선물이었습니 다.

며칠 지나 합격통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합격을 축하한다는 소식과 함께 전액장학금수혜자라는 기쁜 소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1년 학비는 기숙사비를 포함하여 5만 달러가 넘는다는데! 그런데 내 눈을 사로잡은 것은 편지 하단에 쓰인 누군가의 친필 메모였습니다. 재인의의 입학사정을 맡은 담당 스테프가 직접 쓴 글입니다.

“재인아, 입학사정과정을 통해 너를 알게 된 것이 내겐 큰 축복이자 특권이다. 루게릭병을 앓는 아빠로 인해 힘든 일이 수없이 많았으려면 그 고통 속에서 네가 보여준 용기와 강한 의지,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루어낸 많은 성취들에 대해 마음을 다해 존경을 표한다. 네가 하버드 대학에 오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웹사이트: familytouchusa.org

<다음호에 계속>

SAM CARE 샘 복지재단

“강을 건너 세르게 선교로”

대표 박세록 선교사

이메일 samcareusa@gmail.com

Tel. (714)870-1101

1309 W. Valencia Dr. #A Fullerton CA 92833

www.theonehall.com

The One Banquet Hall

one love...one life...

1%의 차이가 명품 웨딩을 만듭니다
The(원) 결혼식, 돌잔치, 세미나, 각종행사

아로마센타5층

213-387-7575

3680 Wilshire Blvd. 5Fl. L.A., CA 90010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기독교 결혼 정보회사

HANA NOBLESSE

초혼, 재혼

YOUNG KIM

213.514.2004

youngkim720@Hanmail.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매달 / 타운내 무료매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설교/비디오 복사

SONY PHILIPS LG

BLANK CD
BLANK DVD
SALES

공 디스크 저가판매!

DiscMaster
자동형 복사&프린터

초간편 복사기

BURN + PRINT

전도용 물티슈 판매

TOLL FREE:1-866-817-4094 (ext.101 or 102)
www.produplicator.com
4010 Valley Blvd., #105, Walnut, CA 91789

생명의말씀사

Word of Life Books

미주 최고의 ONE STOP 기독교 백화점

2707 W. Olympic Blvd., #100 Los Angeles CA 90006
TEL. 213.382.4538 Fax:(213)382-1154

www.lifebook.co.kr

Email: wordoflifela@hanmail.net

로스앤젤레스 지사 **워싱턴DC 지사**

TEL. 800.347.7057 TEL. 800.228.2928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점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31)

4.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 (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우리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의 그 네 번째 성격,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Tradition-Transmitting Educat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자아정체성과 긍정적 자아개념 형성 및 확립에 큰 역할을 하기에, 그리고 다양한 가치들을 지녔기에 그 당위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아정체성 및 긍정적 자아개념(Self-Concept/Image)의 형성 및 확립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논의하였고, 지난 이야기에서부터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가진 다양한 가치들을 살펴보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이 가지는 두 번째 가치, 즉 “전통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긍정적 자산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논지는 사실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의 전통 안에 있는 긍정적 자산들은 우리 자녀들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과 품성을 성장시키는데 있어서 풍성한 교육적

할 것은 우리 전통 안에만 존재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과 품성을 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고유한 긍정적 자산들이 과연 존재하는지 그리고 존재한다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전통 안에는 분명히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한 교육의 자료가 되는 긍정적 자산들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풍성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민족문화적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적 전통입니다. 우선 민족문화적 전통에 대해 살펴보자면, 먼저 기본적 인간 도리(道理, 부모에 대한 효, 민족과 나라에 대한 충성, 사회에 대한 선의, 선행자에 대한 예, 그리고 후행자에 대한 인(仁임/任 등)에 대한 각별한 가치부여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는 계약중심의 사회문화를 일구어 온 미국과 서구사회와 상반되는 것인데, 계약중심의 문화가 가져온 인간 소외의 문제를 겪으면서 미국과 서구 사회에서조차 본받으려고 하는 부분

론 앞서 열거한 고유 가치들도 유교적인 부분들이 많지만 이는 문화로서의 유교로 이해 되어온 반면, 사원들과 같은 유적과 그 안의 유산들의 경우 훨씬 더 도드라지게 종교로서의 유교의 색채를 띠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한옥이 가지는 친한 경성이랄지, 책임감 없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해결책으로서의 선비의식 등이 오히려 외국 지식인들에 의해 긍정적으로 조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다만 이러한 고유의 가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하게 전수될 수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가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통해서 그리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보다 성숙한 인격과 품성의 인격체로 형성되고 자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 사회를 향해, 그리고 세계를 향해, 건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시대적 요구에 대안을 주도하며, 굵은 것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유·불교 바탕 민족문화적 전통, 기독교신앙적 해석에 깊은 연구 선행 순수함 열정 지조 등 신앙적 전통내 긍정적 자산은 풍성한 교육자료

자료들이 되기 때문에,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에 힘써야 할 당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논지는, 우리의 전통 안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과 품성을 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긍정적 자산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전통 안에서 그러한 자산들을 얻을 수 없다면, 위의 논지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위의 논지는 우리 전통 안에 실제로 그러한 긍정적 자산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것들은 미국이나 여타 다른 문화들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오직 우리 전통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고유한 것들이어야만 가능한 논지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자산들이 우리 전통 안에만 있는 고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이 미국 문화 안에도 있다면, 가까이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미국 사회와 문화라는 통로를 놔두고, 굳이 우리의 전통을 전수하는 교육을 실행해야 한다는 당위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이야기에서 분명히 해야

입니다. 또한 공동체 의식(우리의식), 상부상조의 정신, 이웃에 대한 정(情), 한의 정서에서 비롯된 악자를 향한 공감과 동정의 마음, 그리고 진취성과 근면 성실한 생활의 실천 등, 미국 사회에서조차 꼭 배우고 싶어 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가치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일구어 온 우리 민족의 창조력, 예술성, 그리고 장인 정신 등도 우리의 긍정적 자산들입니다. 물론 이들을 우리 자녀들의—우리 한인자녀들뿐 아니라 한국에서 자라는 우리 자녀들에게도—신앙교육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앞서 말한 자산들을 적용시킬 때 보다 훨씬 더 세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긍정적 자산들의 토대가 되는 문화유산들의 대부분이 불교와 유교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산들과 그것들이 내포한 정신문화적 자산들을 어떻게 열린 마음을 갖되 기독교 신앙을 중심에 두고 해석해 내야 하는지 깊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죠(물

론 핵심적 일꾼들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전통 전수 교육이 가지는 당위이며,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제대로 의도적으로 이 교육을 실행해야 하는 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민족적 가치들과 함께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인격과 품성을 성숙시키는데 큰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우리 민족의 신앙적 전통 안에 있는 긍정적 자산들입니다. 순수함, 열정, 그리고 지조로 대표되는 한국적 신앙 전통 안에는 많은 긍정적 자산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뿐 아니라 그 어떤 민족공동체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새벽기도 및 통성기도로 대표되는 열정적인 기도(회)의 전통은 이미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교회의 특성으로 그리고 한국 교회 부흥의 원동력으로 회자되어왔으며, 진정 힘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자랑스러운 자산입니다. 우리의 신앙전통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긍정적 자산들에 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브니엘장로교회)

월 교회의 사명(신5:22-33)찬221장

본문에서 우리는 주님지상명령(마28:19-20)을 발견합니다. 물론, 대상은 다른지만 그 원리는 같습니다. 할례받은 총회는 교회이며 내용은 교훈과 행함이고 임마누엘의 복과 그 장수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위임 앞에 서 있습니다. 시나산의 위임가운데서 십계명을 받은 교회는(22, 25) 성경을 대하거나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엄위 의식으로 총만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순종을 요구 받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배워 좌우로 치우치지 말아야합니다(29,33).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일에 많은 본(기도, 전도, 성경연구 등)이 요구됩니다. 이것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합니다. 그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화 성경교육(신6:1-9)찬450장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함(창18:19)이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신앙의 적용을 가리킵니다. 일생, 장수하고 복을 받고 번성하려면 성경화면 삶을 살아야합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목표는 하나님제일사랑주의입니다(5). 총을 쏘 때 몸의 자세, 눈으로 정조준하고 숨을 죽이고 격발하듯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에 초점

을 맞추어야합니다. 둘째, 4가지 방법으로 하면 쉽습니다. 첫째, 마음에 새겨야합니다(목상). 둘째,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야합니다(교육). 셋째, 강론해야합니다(설교). 넷째, 외형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경건시간을 갖는 성실성을 가질 때 그 목표에 조금씩 이를 수 있습니다.

수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신6:10-19)찬172장

하나님은 없을 때보다 있을 때의 태도를 더 주목하십니다. “배불리 먹게하실 때에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11)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백성 받고 시작하는 은혜의 삶을 이해해야합니다(10-11).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땅, 성읍, 집, 창고,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가 그냥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된 구원임을 알고 언제나 겸손해야합니다(엡2:8-9). 둘째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되돌아보아야합니다. 1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고 하신대로 하나님 관에서 살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삶을 살아야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적을 쫓아내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코람데오(coram Deo,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시다.

목 성경적 2세 교육(신6:20-7:1)찬178장

16세기말 청교도신앙의 특징은 성경교육으로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에 비해 오늘날 미국교육은 그 이념에서 멀리 떠났습니다. 본문은 가나안정복 이후에 관한 가르침을 말해줍니다. 첫째, 여호와경외가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예수를 잘 믿게 하려면 성경을 가르치는 길밖에 없습니다. 둘째, 교육방법은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단순히 이뤄졌고 구원을 중점적으로 가르쳤

습니다. 그리고 고 말이나 지식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삶의 교육이었습니다. 셋째, 교육의 결과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잘 섬기는 거룩한 말과 삶이 있는 자들로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이행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패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승리로 변했습니다. 성경 교육을 통해 세상에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갑시다.

금 보상과 보호(신7:12-26)찬493장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1)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2)물질의 번성과 풍성이며 3)질병에 대한 치유와 자유이며(15) 4)자녀들의 형통입니다. 구약의 복음지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기본인 것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하나님 자신임을 보입니다(창15:1). 그런데 이 상급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길까지도 주님은 분명히 가르쳐주셨고, 믿을

을 연단하셨고 고난을 만나게 하심으로 영적당력을 기르게 하였고 과거의 사건을 기억케 하셨습니다. 가나안의 남은 원수를 완전히 쫓아내심(22)은 그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기억하라”는 표어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표어입니다.

토 낮추시는 이유(신8:1-20)찬221장

신명기 8장에서 우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는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낮춤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양식임을 배워야합니다(2-3). 사람이 사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물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기도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있습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의 첫 번 공격에 사람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

로 산다(마4:4)는 응수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숨는 자는 이미 놀라운 해답을 얻은 사람입니다. 둘째, 겸손을 배워야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다면 겸손이 저절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교만한 고집을 피우는 일이 많습니다. 은혜 의식을 회복해야합니다(16-17).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회개와 믿음의 마음을 가집니다.

한국 교회속에 뒤들린 성령운동

신사도 운동이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한국교회를 뿌리부터 갈아먹고 있다. 진리인 것처럼 포장된 거짓 복음은 신비한 체험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거짓 부흥을 사모하게 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사비로 성경론과 무속적 신앙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어 신사도 운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빠지고 있다

진실된 성령운동으로 바른 영성을 노리다!

카리스 종합주석

NEW

/원어 /배경 /주석 /강해 /One Stop Reading

카리스마종합주석은 성경에 관한 모든 종류의 집류가 상호 긴밀한 연관하여 새롭게 통합 정리되어 있는 세계 최초의 저작입니다.

날권 \$30

전권 구입시 \$25 each

성경, 찬송가 각종 기독교서적 전문 취급

도서

신약서적, 일반서적, 신간도서, 베스트 셀러, 가정/결혼, 교양/문화/교회교육, 교회음악, 디지털바이블, 묵화와 신학, 성경/찬송가/성서연구, 소프트웨어, 신앙생활, 신학일반, 실천신학 어린이/청소년, 영적성장, 오디오북, 원서, 정기간행물, 전도/선교

음악

세로나온 음반, 베스트 셀러, 국내음반, 비디오/DVD, 악보 어린이, 애육음반, 찬송가, 연주 음반

교회용품

목사 가운, 성가대 가운, 크리스마스 강대상, 강대상, 교회용양 선물용품, 시정/행사, 예배용품, 카드, 기타

HIS media

히스미디어에서 하는 일

교회를 건축하시거나 증축하실 때 미리 연락주시면 경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의 가격으로 최대의 효과

■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

■ 좋은 화질의 제품, 저렴한 가격

■ 소형에서 대형까지 무료 상담

■ 멀티미디어 프로젝터와 스크린 판매 & 설치

■ 음향/영상/조명장비 판매 및 설치

■ Multimedia Projector & Screen 판매

■ Consulting/Design/Set up

멀티프로젝터

3000 ANSI LUMENS

2300 Ansi Lumens \$699

2600 Ansi Lumens \$799

3000 Ansi Lumens \$899

그 외 다수의 밝기 모델 취급함

이중통역기

목사님가운

성가대가운

목가님, 박사, 풀업가운, 성가대, 언급위원, 드레스/정장양복

E7

뛰어난 휴대성! 확 바뀌고 달라진 기능!

미가엘 반주기

- 선명하고 넓은 LCD화면

- 원음에 가까운 연주

- 본체 고음질스피커

- USB 호스트 기능

- SD카드 사용

- 터치스크린 방식

- 장시간 연속재생

HIT상품

미주총판

찬양연주기, 성경 DMB, 네비게이션 영화, 음악 FM라디오, 음성녹음 가능

개역 개정 성경과 새 찬송가 교회 단체 구입 시 한국 특가 세일합니다.

아직도 바꾸지 않으셨나요?

바ible 아물렛 (도매부)

기념때

헌금봉투

주보

각종 기념품

주문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소강대상

강대상

헌금함

미중동부 지사 획득! 특별세일!

헬라성구사

에하드수정강대상

EHAD CRYSTAL PULPIT LED LAMP를 설치한 빛나는 강대상 플라만의 독특한 디자인

크리스탈 성구사

최저가격 보장

성구업계 최초 60마크 획득!

한국디자인 진흥원으로 부터 Good Design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지정납품업체 선정

이동이 자유로운 바퀴(360도 회전) 손잡이(171cm) 1톤용

신선한 채워진 물 - 설교자 시력보호

이외에도 다양한 목재성구와 크리스탈 성구가 있습니다.

주문처

성경.찬송가 등 기독교의 모든것

할렐루야백화점

HALLELUJAH BOOKS, Inc.

인터넷 샵몰

www.gospelmall.com

NY

40-21 159th Suite 1B Flushing NY 11358

Tel.(718)762-0011/Fax.(718)762-8402

1-800-404-1171

NJ

205 Bergen Turnpike

Little Ferry, NJ 07643

201-373-0030

LA

621 S. Virgil Ave.

Suite 200 L. A., CA 90005

213-925-5434

성경, 찬송가 기독교서적 일반서적

영문기독교서적 강대상, 가운, 달력, 다이어리

2013 부활절 연합 새벽예배

'부활의 영광과 권능이 우리의 삶속에!'

L.A. 지역

장소: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



강사
민경엽 목사

일시: 2013년 3월31일 (주일)
오전 5시30분

장소: 로스앤젤레스 한인침례교회 (담임 박성근 목사)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213) 383-4982

설교: 민경엽 목사 (O.C.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주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L.A. 동부 지역

장소: 선한청지기교회



강사
김민섭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장소: 선한청지기교회 (담임 송병주 목사)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626) 913-6611

설교: 김민섭 목사 (엠마오장로교회)
주최: LA 동부교역자협의회

밸리 지역

장소: 은혜와평강교회



강사
류재덕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장소: 은혜와평강교회 (담임 곽덕근 목사)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818) 370-0146

설교: 류재덕 목사 (밸리연합감리교회)
주최: 샌퍼난도밸리 한인교역자협의회

벤치라, 옥스나드 지역

장소: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



강사
조인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6시

장소: 카마리오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이상영 목사)
291 Anacapa Drive, Camarillo, CA 93010
(805) 389-3161

설교: 조인 목사 (벤치라카운티장로교회)
주최: 벤치라교회협의회

샌버나디노 카운티 지역

장소: 창대교회



강사
정충재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6시

장소: 창대교회 (담임 이춘준 목사)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909) 388-2940

설교: 정충재 목사 (레드랜드한인교회)
주최: 샌버나디노 교회협의회

사우스베이 지역

장소: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강사
구진모 목사

일시: 2013년 3월31일 (주일)
오전 5시30분

장소: 토랜스 제일장로교회 (담임 이종민 목사)
1880-190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310) 618-2222

설교: 구진모 목사 (시온연합감리교회담임)
주최: 사우스베이목사회

세리토스 지역

장소: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강사
이상명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장소: 세리토스 동양선교교회 (담임 석태운 목사)
12413 E. 195th St., Cerritos, CA 90703
(562) 402-2919

설교: 이상명 목사 (미주장신대 총장)
주최: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 지역

장소: 은혜한인교회



강사
진유철 목사

일시: 2013년 3월31일 (주일)
오전 5시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50 S. Brookhurst St. Fullerton, CA 92833
(714) 446-6200

설교: 진유철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주최: O.C.기독교교회협의회

인랜드 지역

장소: 인랜드 교회



강사
박충길 목사

일시: 2013년 3월 31일 (주일)
오전 5시 30분

장소: 인랜드교회 (담임 박신철 목사)
1101 N. Glen Ave., Pomona, CA 91768
(909) 622-2324

설교: 박충길 목사 (인랜드영락교회)
주최: 인랜드 지역 교역자 협의회

부활절 축하 광고

Happy Easter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 전서 15장 20절)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영길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Pico+Fairfax)

Tel.(323)939-7323
Fax.(323)939-1656

나성열린문교회

담임목사: 박현성

3119 West 6th
L.A., CA 90020

Tel. (213)413-1600
Fax.(213)383-26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12

Tel.(562)691-0691
Fax.(562)691-0698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el. (213)215-8523
Fax.(213)977-1183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목사: 박용덕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el. (714)401-9874
Fax.(562)947-1760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남부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송성섭

3619 McKee Rd, Charlotte,
NC 28270

Tel.(704)-841-0821
Fax.(704)841-1625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Tel. (718)464-2295
Fax.(718)762-4693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40-05 Skilman Ave,
Sunnyside, NY 11104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Tel. (718)461-7835
Cell.(718)938-1777

뉴욕에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훈

7 Jarvis Ave.,
Syosset, NY 11791

Tel. (516)938-0383
Fax. (516)938-3824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 김재열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Tel.(718)279-2757,2758
Fax.(718)279-182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424 N. Western Ave,
L.A., CA 90004

Tel.(323)466-1234
Fax. (323)466-0816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용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Tel. (702)648-7994
Fax. (702)648-7057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37-57 104St,
Flushing, NY 11368

Tel. (718)961-2171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 평안교회

담임목사: 송정명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Tel.(213)381-2202
Fax(213)381-2535

미주 벨엘교회

담임목사: 정요한

158 S. Western Ave, #102
L.A., CA 90004

Tel.(213)422-9191

벽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종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Tel.(626)339-6177
Fax.(626)967-3078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501 S. Ldaho St, #200
La Habra CA 90631

Tel. (714)524-8800
Fax.(562)690-8044

샤롯데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Tel.(704)529-0900
Fax.(704)529-0998

세계비전교회

담임목사: 김영빈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el. (818)363-5887
Fax.(818)368-9883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Tel. (213)745-9191
사택.(818)893-8607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아가페선교침례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635-A Palolo Ave.,
Hon., HI 96816

Tel . (808)735-0011
Fax. (808)732-5550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el. (818)249-2871
Fax.(818)249-051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한종수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el. (949)857-9425
Fax.(949)857-9472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Tel. (215)542-0288
Fax.(215)542-9037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Tel. (915)755-1490
Fax.(915)751-4365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907)344-3182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301 S. Kingsley Dr,2F-B
L.A., CA 90020

Tel. (213)245-409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 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중부뉴저지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원호

445 Old Post Road
Edison, NJ 08817

Tel. (732)310-0022
Fax. (732)537-9742

창대교회

담임목사 : 이춘준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el. (909)388-2940
Fax.(909)338-2941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퀵츠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Tel. (718)672-1150
Fax.(718)672-1151

퀵츠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규성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풍성한교회

담임목사: 박효우

291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8

Tel. (213)381-9490
Fax.(213)385-9191

하트포드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선만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Tel.(860)643-4738
Fax.(860)647-0565

한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운영

929 S. Westlake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 (213)739-8824
Fax : (213)739-8821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마이클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Tel. (516)277-1103
Cell.(917)922-0500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조일구

2122 Metcalf St.,
Hon., HI 96822

Tel. (808)947-5252
Fax.(808)947-5151